



김정록
중앙회장
2011년
신년사

새보람

SAEBORAM



중국 관광지지의 편의시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2)796-4280

www.kappd.or.kr

제220호

2011년 1월



2011년 신년인사회 및 전국지체장애인지도자대회

◆ 일시 : 2011. 1. 20(목) ~ 21(금)

◆ 장소 : 해운대그랜드호텔(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살아있는 불꽃으로

진명희(시인)

온 누리가 붉게 넘실거린다.
큰 파도로 온몸을 일으키며
솟아나는 새로운 시간,
뜨겁게 불타고 있다.

살아있는 것은 뜨거운 불꽃
오, 타오르는 불꽃이여,
활활 끓어오르듯
너와 나의 마음 깊이 파고들어
밝음과 맑음으로 피어 나오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으로
언제나 변하지 않을 빛갈로
찬연한 열매로 익어가라.
창공에 뜬 계수나무 아래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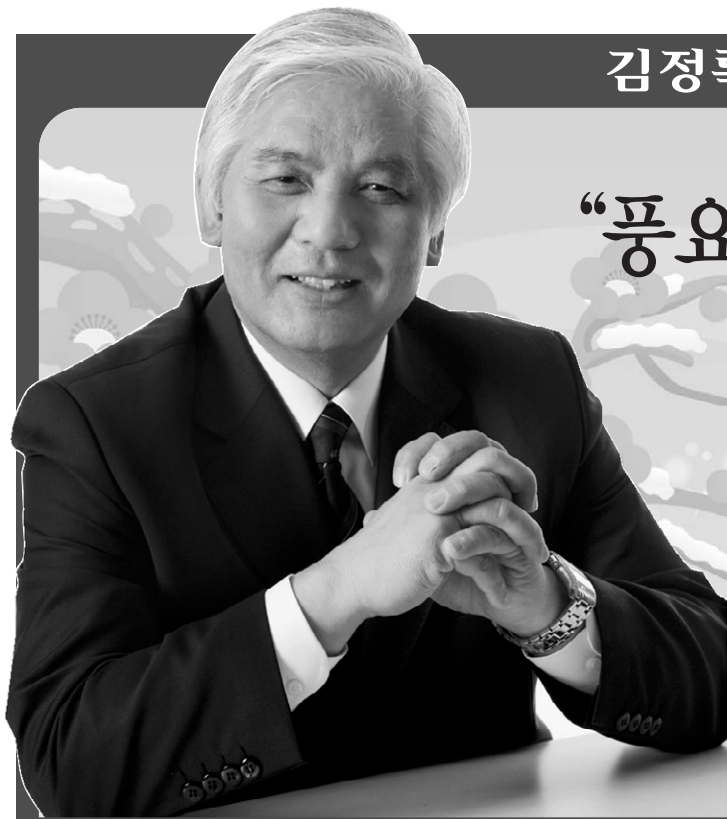
영원한 평화를 꿈꾸며
어두운 밤을 밝혀오던
두 눈의 빛으로 살아있는
한 마리 토끼의 슬기로움
지상에 큰 그림자를 드리워라.

새로운 것은 가슴 설레는 일
설레임은 겸손과 부드러운 소망이다.
이 또한 얼마나 아름다운 빛이런가

살아있는 불꽃
은총처럼 햇살 아래
다시 떠올라
너와 나, 넉넉한 터전을 일구어
신묘년의 불꽃을 타오르게 하라.

김정록 중앙회장 신년사

“풍요롭고 희망찬 2011년을 기원하며”



존경하는 새보람 독자 여러분! 그리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가족 여러분!

새로운 꿈과 희망이 가득한 2011년 신묘년(辛卯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신묘년(辛卯年)을 의미하는 토끼는 띠를 상징하는 동물 가운데 가장 생기가 발동하는 동물로, 특히 '신묘년 토끼띠의 해'는 만물의 성장과, 번성, 풍요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모쪼록 여러분 가정마다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그 어느 해보다 풍요로운 2011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10년은 대한민국 480만 장애인의 '저력'을 확인한 뜻 깊은 한해였습니다. 6월 2일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많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지방의회에 입성했습니다. 이들 한사람 한사람 모두 장차 우리의 오랜 숙원인 '장애인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이 될 것입니다.

특히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지속된 '한국장애인고용공

단 양경자 이사장 사퇴 투쟁'을 전국 장애인 동지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으로 승리로 이끈 것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장애인투쟁의 역사를 다시 쓴 '위대한 승리'이며, 우리가 한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은다면 그 어떤 어려운 난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담은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은 너무도 어려웠고, 수많은 장애인 동지들이 전국의 무허가 시설에서 인권유린을 당했습니다. 장애아동과 여성을 성범죄 표적으로 삼는 천인공노(天人共怒)할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갈 길은 아직도 멀고 험난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난제들을 해결하고 더욱 행복한 한 해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함을 당부 드리며, 저 또한 대한민국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가 한 단계 발전한 2011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끼의 큰 귀처럼 장

애인 동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을 약속드리며,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회원 여러분을 비롯한 480만 장애인 동지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한 단계 향상되는 2011이 되기 위한 노력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협회 운영에 '민주적 의결'과 '보고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전국 16개 시·도협회, 230개 시·군·구지회, 20여만명의 지체장애인이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우리 협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민주적 의결과 보고체계를 강화하고, 산하조직에 대해 정기적인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개최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한편, 의결되어지는 과정 등에서의 민주적이고 역동적인 조직 움직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조직 상하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사무행정의 효율화를 극대화하기 위해 '그룹웨어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회원의 수나 조직의 규모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는 '사무행정 자동화 시스템'의 활용은 필수불가결합니다. 이를 통해 의결사항 등에 대한 조직 상하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의 및 처리 과정을 강화할 수 있고,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회원에 대한 관리와 정보에 대해 공유 및 관리, 보관 등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장애인당사자성에 근

거한 정책개발을 위해 '장애인정책연구소'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장애인정책연구소'를 장애인 당사자성에 근거한 정책개발을 위해 정계, 학계, 법조계, 장애인당사자 등을 망라한 '장애인정책 자문위원단'으로 구성하는 것은 물론, '정책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대한민국 장애인복지정책의 이슈를 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연구를 위해 '복지육구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려 합니다. 전국에 퍼져 있는 우리 협회의 조직력을 활용해 국가정책과 장애인 복지육구를 실태조사하는 것은 물론, 우리 협회에서 매월 발행하고 있는 장애인신문 '새보람'을 통해 이에 대한 문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넷째, '제3차 아·태 장애인 10년'을 장애인 당사자의 요구와 입장이 반영된 '뉴-데케이드(New-Decade)'로 만들겠습니다.

'아·태 장애인 10년'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고위급 정부 관료들이 아·태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10년'동안 추진할 계획을 뜻하는데, 한국 장애인들은 물론 나아가 아·태지역 4억 이상의 장애인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정책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현재 2차까지 진행된 '아·태 장애인 10년'에 장애인당사자의 참여는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당사자의 목소리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일부 전문가 집단과 정부주도형의 선언적 행동으로만 일관돼왔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지난 2010년 12월 15일 이룸센터에서 『아·태 장애인 10년을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여, '제2차 아·태 장애인 10년'을 장애인 당사자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2013년 시작되는 '제3차 아·태 장애인 10년'을 장애인 당사자의 요구와 입장이 반영된 '뉴-데케이드'로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그동안 장애문제를 전문가주의에 의해 해결하려고 했던 모든 제도와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고 '당사자 참여'와 '당사자 주권'을 보장하는 '제3차 아·태 장애인 10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장애인 동지 여러분!

지난 2010년은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못 다한 아쉬움과 무거운 짐은 떠오르는 해와 함께 물어버리고, 새로운 각오와 희망으로 밝아오는 새해를 맞이합시다. 우리에게 2011년은 그 어느 해보다 풍요롭고 희망찬 해가 될 것입니다.

장애인 여러분과 모든 가족, 그리고 모든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하며, 모쪼록 건강하고 밝고 희망 넘치는 활력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장애인 동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1년 1월 1일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김정록

1987년 9월 1일 창간 월간 새보람 제220호 2011년 1월 15일

회 장 · 발행인 / 김정록 편집장 / 이현일 발행처 /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층

등록번호 / 서울라05825

홈페이지 http://www.kappd.or.kr E-mail : hambaknun30@nate.com

대표전화:(02)796-4280 FAX:(02)796-4281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인사 동정

- 임용 박상구 성남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 김인숙 의정부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이규달 협회장

“단합된 힘으로 최고의 성과를 거둬시다!”

밝아오는 신묘년(辛卯年)을 맞아 언제나 지역장애인 복지에 열정을 가지고 활동을 해주신 각 구지회장 및 분회장들과 회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

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협회에서는 올해에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두터운 마음의 벽을 허물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역할을 앞장서서 해나가고자 하며, 이를 통해 소외되었던 장애인들을 사회에 참여시킴으로서 삶에 희망을 갖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고

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간의 미진했던 각 지역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취합하여 수동적이지 않고 스스로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를 찾아 나가며, 우리가 원하는 정치공약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통해 진취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정치세

력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근래에 장애인계의 이슈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제도 확대와 장애인연금제도 개선,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장애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 체육활성화 등을 포함한 장애인 복지증진 문제가 산적해 있기에 시기적으로 중요한 때를 맞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협회에서도 이를 이루어 나가는 데 큰 일조를 하기 위해 분회조직에서부터 각 구지회의 모든 임직원과 회원들이 합심하여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 당사자 단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함으로서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올해에도 회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드리며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장 김광표 협회장

“기운찬 토끼의 걸음처럼 노력하는 2011년”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애인 동지여러분! 신묘년(辛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면으로나마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를 드리

게 되어 한량없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하여 많은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특히 장애인 공단의 문제와 한나라당 장애인 위원장 선출은 우리들에게 큰 관심사였습니다.

“이겨야만 승리가 되는 자가 있는 반면 지키기만 해도 승자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2010년 한국의 장애인 복지는 과연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지의 발전도 없었을 뿐 아니라 장애인 등급 조정 등 여러 가지로 우리들에게 불이익이 되어 한국

복지는 지키지도, 이기지도 못한 패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전국의 장애인 동지여러분!
작년 한 해는 못다 이룬 장애인 복지 발전이었지만, 2011년은 동지들과 힘을 합쳐 장애인 복지 내

에 산재한 많은 일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할 시기라 봅니다.
먼 훗날 우리 후배들에게 부끄러운 선배가 아닌 진정 자랑스러운 선배 장애인 지도자로 그 이름이 기억될 수 있도록 신묘년(辛卯年) 기운찬 토끼의 걸음처럼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지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김창환 협회장

“새로운 도약을 위한 2011년을 만듭시다!”

사랑하는 전국의 지체장애인 동지여러분,
신묘년(辛卯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 희망의 2011년에는 사랑하는 전국의 지체장애인 동지여러분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

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구협회에게 2010년은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지역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인권신장, 복지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다양한 복지사업을 전개하였으며, 지역 장애인단체의 리더로서 역량을 적극 발휘하여 장애인당사자에게 신뢰받

는 협회로 인식되었습니다. 특히 전국 광역시단위에서는 최초로 8개구·군에 편의시설지원센터를 모두 개소함으로써 16개 시도협회의 모범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2011년은 대구협회가 새로운 모습으로의 변모를 위한 도약의 해로 만들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협회의 모든 사업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효과성이 부족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며, 지역 장애인의 복지발전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함으로써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된 대구협회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1년 신묘년은 토끼가 주인공인 해입니다. 토끼는 동그란 눈과 큰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그란 눈은 세상을 동글게 긍정적으로 보라는 뜻이며, 큰 귀는 많은 소리를 제대로 들으라는 뜻이 있습니다.
토끼의 눈과 귀가 조절력을 갖추었듯이 우리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모든 회원 여러분의 눈과 귀도 세상의 숭한 풍문들을 걸러내어 올바르게 보고 올바른 소리에 귀 기울이며 주변과 이웃을 한 번 더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신묘년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천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추송근 협회장

“내실화 및 Improvement를 위한 한해”

친애하는 전국의 장애인과 가족 여러분!!
2011년 새해에 여러분 모두가 소원성취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해 여러 가지 어려

운 상황 속에서도 정성을 다하여 장애인 복지를 위해 헌신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마음으로 부터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10년은 국가적으로 참으로 소중하고도 값진 성취를 이루어낸 뜻 깊은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지역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재활증진을 위하여 모

든 역량을 다하여 장애인의 인권확대, 참여기회 확대의 첩경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사회전체가 관심을 가지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협회는 2011년 기존 사업을 중심으로 장애인당사주의 원칙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에 있어 장애인의 참여방안을 마련하고 전반적인 사업

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조직의 체계화, 담당인력의 전문화를 통하여 협회를 활성화시키고 재정을 확충하여 지회별 수익사업 추진에 각분야별 적극지원을 하여, 지역내의 장애인 모두가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진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장애인과 그 가족들

의 권익옹호와 시설의 발전 그리고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은 계속될 것임을 다짐하면서 우리협회에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희망찬 새해를 맞아 올해도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실이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이재홍 협회장

“새롭게 도약하고 발전하는 지장협”

사랑하고 존경하는 지체장애인 회원 여러분.

새해 신묘년(辛卯年)에는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고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

시길 기원하오며 밝고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장애인들의 권익신장과 장애인 재활자립에 전력하신 본 협회 김정록 중앙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16개 시·도 협회장님과 희생적이고 헌신적 사명감으로 활동을 했던 230개 시·군·구 지회장님들 에게도 그간

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에 우리협회는 대한민국 장애인 단체를 대표하는 최대 장애인 단체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잘못된 장애인 복지정책과 인권 등 장애인들에게 불합리한 내용들을 시정하고자 정부와 관련기관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효과도 있었으며 차후의 정책개선에 대한 약속도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사람 한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중앙회를 비롯한 16개 시·도 협회와 230개 시·군·구 지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일심단결하여 이루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신묘년 토끼해에는 토끼처럼 영리하고 활동적으로 장애인 복지와 지장협 발전을 위하여 과거에 집착하거나 매달리지 말고 새롭게 도약하고 발전하는 지장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배우는 자세로 노력하고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매진하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2011년 신묘년에도 전 회원 모두가 건강하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장애인 복지사회구현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합니다.



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윤석연 협회장

“희망과 감동의 2011년을 만듭시다”

2011년 첫 해가 밝았습니다.

유독 추웠던 2010년은 우리 장애인들에게는 마음까지 춥고 힘들었던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는 지금의 이 벅찬 마음은 앞으로의 우리나라가 희망과 감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함입니다.

작년 한해 가장 우리의 생존권과 직결돼 있던 장애인등급심사제,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 등은 올 한해에

도 여전히 우리에게 큰 난제가 될 것이라 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장애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현실이 고려된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체장애인협회는 장애인 여러분과 모든 가정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함께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애인 여러분!

지난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의 사퇴에서 보듯이 우리 모두의 한마음이 이뤄낸 성공은 2011년을 이끌 여러분의 저력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저력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 맞춰 우리 장애인들도 이 변

화의 흐름에 따라 더 이상은 사회의 약자로서의 장애인이 아닌 사회의 주역으로서의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는 더욱 더 열심히 땀 것을 약속합니다.

이러한 약속과 희망으로 신묘년 새해의 문을 활짝 열고 ‘행복한 사회, 따뜻한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 모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이동석 협회장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2011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울산협회는 지난 몇 년간 뼈를 깎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들 속에서도 회원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성원이 울산지체장애인협회가 흑독한 시련을 견뎌내고 안정기로 다가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외면하지 않고 함께해 주신 회

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어려운 시기를 함께 묵묵히 참아내신 울산 지역 내 회원들의 권리 찾기와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협회가 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이 경제적·사회적 여력을 갖추어 사회에 진출하고자 할 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작년 2010년이 나보다 소외되고 좀 더 힘든 이웃을 돌아보자는 생각을 가지게 한 한해였다면, 2011년은 그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여 실천하는 한해로 만들기 위해서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작년부터 시행한 장학금 지원 사업과 명절 백미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늘려 회원들 간의 따뜻한 정을 느끼며, 나눔의 행복으로 가슴 한쪽에 뿌듯함이 쌓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돈도 중요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건강이 아닐까 합니다. 자신이 건강해야 다른 사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회원 여러분!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빕니다.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 김홍수 협회장

“2011년, 역량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경은 진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복지여건도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 등의 시혜적 복지에서 능동적 복지, 현장 중심의 맞춤형 복지가 화두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고, 애써 모아진 힘을 분산시

키는 어리석음을 엄중 경계해야 합니다.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는 회원 간의 화합과 소통의 기회 확대를 위해 여름철 대규모 휴양 프로그램인 16회째 하계캠프를 운영하고, 19회째를 맞는 가을철 한마음전진대회를 내실 있게 개최하여 축적된 우리의 역량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게이트볼과 좌식배구의 도지사기 시군대항전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와 엘리트 체육의 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도 협회와 시군지회 단위의 편의시설 지원센터의 확충과 역량강화를 이루어 다 같이 편한 세상, 살기 좋은 복지환경 개선에도 힘을 쏟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역

량을 강화하여 축적된 힘을 정치세력화로 승화시킴으로써 지방 정치, 생활 정치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늘려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주체가 되는 복지환경 구축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입니다. 신묘년 새 해를 맞으며 우리 장애인들이 정신과 육체의 건강을 증진시켜 나가는 가운데, 평등을 통한 사회 통합의 당당한 주체로서 거듭나는 대열에 기꺼이 동참해주시기 기대하면서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장애인 동지 여러분! 신묘년 새 해를 맞아 꿈과 희망 속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환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표창대 협회장

“능동적 변화, 탄탄한 내실”

운이 두루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여느 해 보다 올해는, 이곳저곳에서 복지를 부르짖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당사자가 체감하지 못하는 공허한 약속이 남발되지 않도록 중앙과 지역에서 함께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2011년 새해에는, 가까운 미래에 우리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대한민국 480만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대표단체가 되길 소망하고, 그 역할 안에서 우리의 자긍심과 투지로 보람을 찾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480만 장애인동지 여러분!

‘변화’와 ‘내실’을 동시에 요구받는 시대입니다. 상식이 겸비된 보편적 변화는 물론, 그 변화에 스스로를 위협에 빠뜨리지 않는 ‘내실’을 다지는 현명함이

함께 갖춰져야 지속가능한 전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보수와 개혁을 이분법적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모두를 겸양의 자세로 포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새해를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토끼처럼 달리되, 거북이의 신중함이 좋습니다. 더불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신묘(辛卯)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장애인 동지 여러분에게 새로운 해가 내포하고 있는 모든 행



충청북도지체장애인협회 변창수 협회장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해”

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장애인 정책측면에서 많이 축소되고 정부의 혜택을 받기에는 더 어렵게 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장애인 단체는 정부와 충돌도 많이 했었고 반대적인 입장에서 서서 장애인들을 대변하려 노력해왔던 한해라고 기

억이 됩니다.

지난 2010년이 호랑이처럼 힘센 기운으로 전진하고자 했던 해였다면, 2011년은 토끼의 성격처럼 예민하지만 쉽게 내색하지 않으며 지혜롭고 명석한 두뇌로써 완벽한 장애인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나간 일에 매달려 다가오는 앞날에 매진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나간 일은 반드시 참조하여 잘된 것은 반영하고 잘못된 것은 반성하여 앞날에 밑거름이 되어야 합니다.

중앙회를 비롯하여 모든 협회들이 항상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다른 사람의 장점은 서로 칭찬하고 반영하고 모든 사람들이 긍정적, 적극적으로 생활하여 지난해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성숙한 의식의 개개인이 되어 장애인 정책의 완숙미를 만들어 나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회원 여러분!

201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돌아보면 지난해는 참으로 다



충청남도지체장애인협회 이진휘 협회장

“장애인 고용 촉진의 해”

습니다. 무엇보다 뜻 깊은 일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최된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로 인하여 우리나라 중재능력 해결을 위한 리더십을 인정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글로벌시대에 발맞추어 장애인에 대한 인식 또한 새롭게 변화해 할 것이며 사회적 여건과 시설, 그리고 환경의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480만명에 달하는 장

해인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장애인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고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이 개인에게 맞춤형 직업을 가지고 사회의 당당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이동과 생활이 기본이 되는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한다면 장애인이 장애를 느끼지 않고서 사회속의 한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으리

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장애인 고용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리 충청남도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업체발굴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장애인이 취업하여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할 수 있는 직업교육센터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여 안정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가 앞으로 이

루어내야 할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장협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 지장협회도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합니다. 자생력을 길러야 합니다. 보조금에 의지하는 협회 운영에서 과감하게 탈피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도약하는 지장협!”, “꿈을 이루어내는 지장협!”이 될 수 있도록 또 다시 모두의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쳐나가는 한해가 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만복이 깃들고, 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길 기원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로운 꿈과 희망으로 부푼 201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찬란한 새 아침을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행복한 웃음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돌아해보면 지난 한해동안 우리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했



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 변창수 협회장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입니다”

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새해에는 우리 장애인 가족 모두에게 희망이 넘치고 우리 모두가 환하게 웃을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1세기는 다양성의 시대이며 다양성의 수용은 창조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저는 장애인고용이

야말로 다양성 확보의 지름길이며 나아가 우리사회의 분열과 갈등구조를 치유할 수 있는 사회통합의 지름길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최고의 복지가 일자리라는 인식을 더욱 확산시켜 장애인도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발전의 주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회를 얻은 장애인들은 더욱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사고의 전환으로 분배정책보다도 기회의 공평한 제공이 장애인에게 꿈과 희망을 준다는 사실을 보편화 시켜 나갑시다.

사랑하는 장애인 가족 여러분!

2011년 신묘년 한해에도 장애인고용으로부터 사회통합이 가능함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 도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큰 꿈과 큰 도전은 우리의 삶에 활기를 줄 것이고 이러한 활기는 충분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새해를 맞아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애인 가족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전라남도지체장애인협회 김평호 협회장

“미래를 대비하는 2011년”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애인 동지 여러분!

태양이 뜨고 지듯이 한해가 바다너머로 뉘엿뉘엿 잠자리에 듭니다.

2010년은 그 어느 해보다 우리의 권익과 의식이 신장된 한

해였습니다. 김정록 중앙회장님을 중심으로 전개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의 투쟁은 우리 장애인들이 완전한 재활과 자립을 이루려는 열망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었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방침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수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정책과 방향을 제시하고 꼭 필요할 때에는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성숙한 복지소비자로서 진정한 장애인복지가 살아 숨 쉴 수 있는 역동적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데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장애인 동지 여러분! 세계는 우리가 지니는 조그만 휴대폰 하나로 더불어 대화하고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단체들도 행정 및 경영능력을 향상하고 수준 높은 복지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지역에서 세계로 나아가는 미래인(未來人)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를 대비할 수 없는 상황이 눈앞에 닥쳐옵니다. 2011년 새해를 맞아 전

남지체장애인협회와 22개 시·군지회는 무엇보다 프로그램의 운용능력을 높이고 행정과 경영능력을 높이는 해로 만들 것입니다.

문화는 답습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서 미래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봅시다.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해 동지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전국의 장애인 동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장재권 협회장

“새해 각오를 잊지 않겠습니다”

신묘(辛卯)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히 견디고 일어난 삶이 있었기에 새

롭게 주어지는 일년이 고맙고 가슴 벅칩니다. 장애인복지에 대한 사명감을 새로이 하여 협회와 회원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해 경상북도의 장애인복지를 더욱 힘차게 이끌 것을 다짐해 봅니다.

신묘년 새해를 맞아 우리 경상

북도지체장애인협회는 ‘제10기 시·군·구지회장’들과 함께 “청렴하고 신뢰받는 지도자”를 기본모토로 지속적으로 향상된 사업성과를 확립하여 경북 23개 시·군이 골고루 발전하는 해로 삼겠습니다.

그 다짐의 일환으로 우리협회는 ‘도약! 2011 시·군지도자 연찬회’를 열어 새해 각오 및 지회운영 목표 등을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날 우리협회는 시군지회장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 500만

원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희망나눔 성금으로 기탁하면서 의미 있는 새해 출발을 했습니다.

신묘년 한 해 동안 이번 새해 출발을 항상 되새기면서 장애인 복지 현장에서 살겠습니다. 새해, 모두에게 희망차고 더불어 행복한 한 해 되길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전국의 장애인 동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상남도지체장애인협회 김준식 협회장

“희망과 열정으로 가득찬 2011년”

2011년 신묘년(辛卯年)에는 언제나 회원님들의 건강과 복지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겠습니다. 협회장으로써의 업무에 매진하며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0년은 유럽국가의 경제문제, 구제역발생, 천안함 사건 등 국내외의 불안요인으로 서민생활에 고통과 시련을 주었고 그 여파가 장애인복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경상남도지체장애인협회는 끊임없이 회원들을 위한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존경하는 장애인 여러분! 초심을 잃지 않고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과 복지증진을 위해 성실히 뛰어다니는 물론, 대한민국의 장애인 동지 여러분들이 살맛나는 생활을 영위하는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경제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장애인복지를 누구나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향

상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직원역량강화와 신규복지정책 사업의 수립을 통해 도내 장애인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신뢰받는 경남협회가 되겠습니다.

2011년 한해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축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부형중 협회장

“2011년의 힘찬 출발을 위해”

존경하는 전국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회원 여러분!

2011년의 새해가 활짝 열렸습

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경인년을 뒤로하고 그 바톤을 신묘년 새해가 이어 받았습니다.

이제 희망과 도전정신을 기반으로 새로운 각오와 결심 하에 새해를 설계하여 보람되고 활기

찬 새해가 되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을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긍정과 부단한 진취를 목적으로 우리들의 소임을 다 할 때 제주지장협은 남들보다 한걸음 앞선 협회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

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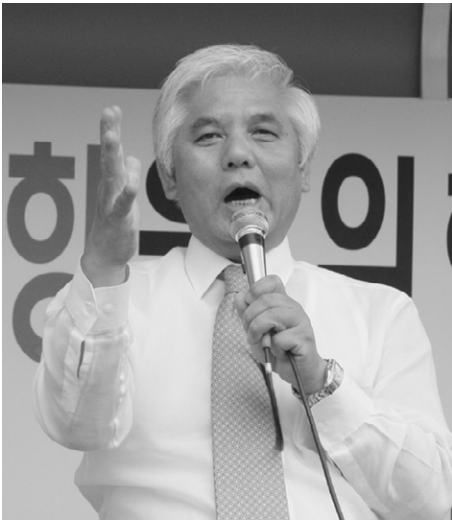
새로운 설계, 새로운 발상으로 우리협회가 나아 갈 길을 힘차게 힘을 모아 활로를 모색 합니다. 항상 어려운 장애인 가족들이 곁에 있다는 소중한 마음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목표, 그게 바로 장애인의 복지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올 한해, 신묘년을 힘차게 전진해 나아가시길 당부드립니다.

회원가족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운의 항상 참만하시기를 기원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의 '제7대 상임대표'로 선출된 김정록 중앙회장.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정록 중앙회장이 2011년 1월 6일(목) 이룸센터 2층 교육실에서 열린 「2011년도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 정기총회」를 통해 장총련의 '제7대 상임대표'로 선출됐다.

향후 2년간 장총련의 상임대표직을 수행하게 될 김정록 중앙회장은 상임대표 수락 인사말을 통해 “장총련을 ‘당사자주의의 메카’로 반석 위에 올리는 사명감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밝히며 “상임대표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당사자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장애인의 인권향상과 권익옹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어 장총련을 ‘당사자주의의 메카’로 만들기 위한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김정록 중앙회장, 장총련 ‘제7대 상임대표’로 선출

임기 2년... “장총련을 당사자주의의 메카로 만들 것”

<상임대표 승낙 인사말 전문>

장총련을 이끌어 오신 전 회장님들의 노고와 활동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벌써 운명을 달리하신 세 분의 대표님들과 일선에서는 물러났지만 여전히 애정과 사명으로 장총련을 돌보아 주시는 회장님들에게 제가 가야 할 길을 미리 닦아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를 제7대 장총련 상임대표로 선정해 주신 데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무한한 책임과 역할을 저에게 주신 것은 장총련을 ‘당사자주의의 메카’로 반석 위에 올리는 데 일조하라는 사명으로 압니다.

이제 새 밀레니엄 시대의 또 다른 새로운 10년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그 동안 집권당인 한나라당으로서는 총선 국회의 마지막 해로서 공약이 잘 지켜지는지 독려하고 감시하여야 할 것이고, 새로이 시작되는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의 이행에 있어 배제되는 이가 없도록 실질적인 제도로 정착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장총련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중심으로 인정받는 단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저는 10대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집중하고자 합니다.

먼저, 당사자의 참여 보장입니다. 당사자가 사회와 장애인 정책에 완전한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당사자 단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원개발과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정책을 개발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할 것입니다. 성년후견제와 활동지원법의 올바른 시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며 ‘제3차 아·태 장애인 10년’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는 2012년에 있을 총선을 대비하여 공약평가와 정책개발을 시작할 것이고, 장차법과 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인식개선, 모니터링, 법률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 밖에 ‘장애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재활보조지원이나 서비스 전달체계, 장애인 판정 재심사 등의 제도 개선에 대한 대응에 나서겠습니다.

이밖에 장애유형·성별 개별화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과 사회적 환경개선과 안전망, 교육과 노동권 등 안전망과 권리보장을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이제 장총련은 장애인 대표 단체로서 자리를 굳건히 하고, 모든 단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단체로 거듭나야 할 때입니다. 그 힘은 개별 단체들의 협력과 연대로 가능한 것이므로 동행하는 길에 단지 자리만 같이하는 것이 아니라 손잡고 힘을 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원 단체들의 적극적인 희생과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월 6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 김정록

“희망찬 신묘년, 새로운 출발!”

중앙회, 새해 업무 본격 돌입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정록, 이하 지장협) 중앙회가 시무식을 통해 신묘년(辛卯年) 새해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2011년 1월 3일(월) 오전 11시 이룸센터 2층(다목적 프로그램실)에서 열린 ‘2011년 중앙회 시무식’에서 지장협 중앙회 임·직원 30여명은 올 한 해를 전국 480만 장애인의 복지 및 인권이 한 단계 도약하는 해로 만들 것을 함께 다짐했다.

김정록 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 장애인복지를 선도하는 지장협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정책 개발 및 개인의 역량강화에 노력해야 한다”며 “자신이 맡은 직무에 열과 성을 다해, 480만 장애인 모두가 활짝 웃는 행복한 한 해를 만들자”고 주문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행복한 새해를 기원하는 케익커팅식과, 파이팅을 외치며 새로운 해의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11년 중앙회 시무식'에서 김정록 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앙회 직원들이 새해의 힘찬 출발을 다짐하고 있다.

2011년 신년인사회 오는 20일 개최



지난해 1월 28일(목)부터 29일(금)까지 이틀간 경북 경주시 신평동에 소재한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2010년 신년인사회' 모습.

국내 최대의 장애인당사자단체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정록, 이하 지장협)의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2011년 신년인사회 및 전국지체장애인지도자대회(이하 대회)」가 오는 20일(목)부터 21(금)까지 1박 2일간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그랜드호텔에서 열린다.

지장협 산하 지역장애인지도자 및 시설 임직원들이 교류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여 협회 발전을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장애인복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장애인지도자들의 의식과 자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지장협 지도자 4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희망찬 새해를 다짐하기 위한 ‘신년인사회’와 전국 지도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명사초청강의’, 2011년 지장협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김정록 중앙회장 특강’ 및 ‘중앙회 사업 설명’이 실시된다.

또한 지역별 우수사업 및 특화사업의 사례발표를 통해 지역 간 복지정보의 교류로 균형있는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모범사례 발표’가 실시될 예정이다.

‘희망 나눔 성금’ 500만원 전달

‘제10기 시·군지회장’들의 모금으로 마련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이하 경북협회)는 지난달 30일 장재권 협회장과 경북협회 산하 23개 시·군지회장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 500만원을 경상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최덕수)에 ‘희망 나눔 성금’으로 전달했다.

이번 성금전달은 경북협회 ‘제10기 시·군지회장’으로 임명된 23명의 신임지회장들이 지회 운영 목표 등을 발표하고 다짐하는 첫 연찬회 자리에서 이루어져 그 의미가 컸다.



장재권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장과 ‘제10기 시·군지회장’으로 임명된 신임지회장들이 ‘희망 나눔 성금’을 경상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재권 경북협회장은 성금을 전달한 후 “도약의 2011년을 다짐하며 ‘희망 나눔 성금’을 전달하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

한다”며 “의미 있는 출발을 가진 만큼 더 큰 다짐과 목표로 경북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부형중, 이하 제주협회)에서 주최하는 ‘2010 송년회 및 후원인의 밤’ 행사가 지난 12월 22일(수) 탐라장애인복지관 다목적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1부 공연으로 제주 지체장애인협회 여성풍물단 길트기 풍물공연과 한라소년합창단 하모니카 중주단, 한울림 하모니카 연주단공연, 혜정원 아가의집 밴드공연과 제주도립 예술단 소속 성악가 소프라노 조은경과 테너 문순배의 열창과 제주협회 도내 최초 여성장애인으로 구성된 여성밴드 ‘WPM’의 공연이 이어졌다.

이어 2부 행사에서는 201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그동안 지체장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에

‘2010 송년회 및 후원인의 밤’

공연 및 표창장 수여...장애인 자녀에 장학금 전달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가 지난달 22일 개최한 ‘2010 송년회 및 후원인의 밤’ 행사 모습.

힘쓴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한 ‘표창패 수여식’이 실시되어 제주시지회 위명희, 한정희, 김수희씨가 중앙회장 표창을, 강일순, 김만식 씨가 제주협회장 표창을 수상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제주협회에서 선발한 서귀포산업과학고

한민우, 제주관광대학 송승혁, 배석대학교 전성후 이상 3명의 장애인 자녀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한편 (주)자바정보기술 박상열 대표이사가 후원한 백만원 상당의 쌀을 주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용인시서북장애인종합복지관

지난 12월 22일(수) 용인시서북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임형규) 4층 강당에서는 올해로 4회째를 맞는 ‘밝은누리밴드 콘서트-WITH’가 열렸다.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하나 되어 묵묵한 걸음을 걸어온 밝은누리밴드는 이날 콘서트를 통해 톱스타 못지않은 열정과 실력으로 자리를 함께한 모두의 가슴에 큰 감동을 선사했다. 또한 직업적응훈련생들과 복지관 직원, 노래교실 강사와 이용고객들이 함께하며 그 의미를 더했다.

임형규 관장은 “노래 한 곡을 익히기 위해 2달 동안 주말도 없이 연습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밝은 누리밴드 콘서트 “WITH”



지난 12월 22일 용인시서북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밝은누리밴드 콘서트-WITH’ 모습.

훌륭한 연주를 하는 것은 분명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다”고 말하며 “장애라는 편견의 벽 앞에 당당히 맞서서 최고의 하모니를 선사한 밝은누리밴드가 자신의 꿈과 희망을 연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도

움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감동적인 공연을 선보인 밝은누리밴드는 지적·자폐성 장애인들의 자존감 향상 및 임파워먼트 강화를 위해 지난 2007년 결성됐다.

“각설이 타령에 한해를 실어 보내다”

관악구지회, ‘장애인 송년의 밤’ 개최



지난달 31일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관악구지회가 개최한 ‘장애인 송년의 밤’ 행사에서 장애인들이 각설이 타령을 박수를 치며 즐기고 있다.

서울협회 관악구지회

지난달 31일(금) 관악산자락 관악문화관도서관에서는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관악구지회(지회장 박래선)가 주최하는 ‘장애인 송년의 밤’ 행사가 열렸다.

송년분위기로 들뜬 사회분위기 속에서 자칫 상처받고 소외받기 쉬운 장애인들에게 송년 행사를 통해 삶의 활력을 주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

사에는 전날 내린 폭설에도 불구하고 100여명의 장애인들이 참석해 각설이 공연을 관람하고 장기자랑을 통해 숨은 끼를 마음껏 발휘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석한 유용식(52세 지체1급)씨는 “장애가 있다 보니 연말 친구들조차 만나지 못해 외로웠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 2010년 한 해의 스트레스를 모두 해소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기침체와 한파를 뛰어넘는 온정”

김천시지회, ‘사랑의 쌀·라면·꿀 나누기’ 실시



‘사랑의 쌀·라면·꿀 나누기’ 행사를 통해 김천시내 장애인들에게 전달된 기증품들.

경북협회 김천시지회

연말을 맞아 경기침체와 한파에도 불구하고 주위의 어려운 장애인을 돕는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김천시지회(지회장 박선하)는 지난 12월 29일(수) 지회 사무실에서 ‘사랑의 쌀·라면·꿀 나누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황금동교회에서 쌀(20kg) 20포, 남산교회 쌀 20포, 제일교회 권사회 쌀 6포, 김천자판기 백경목 대표 쌀 5포, 오래또래 최동국 대표가 쌀 3포를 주위의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기증하며 마련됐다. 또한 화성농

원 이광석 대표가 꿀(2kg) 20병을, 김천시지회 자체에서도 쌀(20kg) 21포와 라면 20상자를 자체적으로 마련하며 힘을 보탰다.

박선하 지회장은 “해마다 연말이면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주셨는데, 올 해도 어김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생활고를 겪고 있는 어려운 장애인들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를 통해 마련된 쌀, 라면, 꿀은 김천시에 거주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소중히 전달됐다.

“장애인들이 더 살기 좋은 세상을 위해”

장총련·연맹, ‘2011년 장애인계 신년인사회’ 공동개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11일 오전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2011년 장애인계 신년인사회’를 갖고, 장애인 발전을 위한 화합을 다졌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김정록, 이하 장총련)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박종성, 이하 장총연)이 1월 11일(화) 오전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2011년 장애인계 신년인사회’를 공동으로 개최하며, 장애인 발전을 위한 화합을 다졌다.

이들 단체는 이날 신년인사회를 통해 ‘완전한 참여를 여는 새

로운 10년’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장애인 인권 향상과 당사자의 사회 참여를 위한 장애인계의 교류와 연대를 약속했다.

먼저 지난 6일(목) 장총련의 ‘제7대 상임대표’로 선출된 김정록 대표는 “우리는 권리의 보장과 당사자의 완전한 참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며 “우리 장애인단체들은 그러한 토끼를 잡는 장치로서의 역



‘2011년 장애인계 신년인사회’에서 김정록 상임대표를 비롯한 내외빈들이 풍요롭고 희망찬 2011년을 기원하는 건배를 하고 있다

할을 다해야 하며, 정부의 정책 개발에 참여하고 모니터링하며 당사자로 권리를 누리는데 올해도 게으름 없이 달려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장총련과 한국장총은 더 잦은 교류와 조화로운 관계 형성을 통해 장애인계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힘을 모으자”고 덧붙였다.

김정록 상임대표에 이어 박종

성 장총 상임대표는 “토끼의 큰 귀처럼 장애인을 위해 많이 귀 기울이는, 경청하는 한 해가 돼야 한다”며 “작년 많은 법이 만들어졌는데, 올해 그 법들을 제대로 실천에 옮기는 해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최원영 차관은 내빈신년사를 통해 “신묘년 새해도 여러분과 장애인이 한 뜻으로 힘을 모으면 장애인 삶

이 화평해지고 풍요로워 질 것”이라며 “정부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자립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장애인계 대표 인사들을 비롯해 민주당 손학규 대표, 창조한국당 공성경 대표, 한나라당 이춘식·이정선 의원, 민주당 박은수·주승용·전현희·김유정 의원,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 국가인권위원회 장항숙 상임위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장애인이 단순히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아니라, 장애인이 적극적으로 이끌어가서 사회발전을 시키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손 대표는 “지금의 장애인은 3~40년전의 사람들이 보던 장애인, 부모가 장애 자식을 부끄럽게 생각했던 장애인과는 완전 다르다”며 “이제는 장애인 스스로가 내 인생, 내 삶을 살며 우리 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장애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에이블뉴스〉

“새해 복지정책 패러다임 바꾸겠다”

진수희 장관, 신년사 통해 밝혀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이 지난달 31일(금)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는 보건복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진 장관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기를 낚는 법을 알려주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적극적인 시스템으로 보건복지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서비스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할 것”이라며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고 우수한 수준의 의료 기술을 세계 시장으로 진출시키는 도약의 한해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마지막으로 “신묘년(辛卯年) 새해를 맞아 올해의 사자성어로 사회 전체를 보듬는 ‘기여보비(寄與補裨) 이바지하여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

돕고 부족함을 보태어 준다’로 정했다”면서 “어려운 서민들의 모자라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채워준다는 자세로 능동적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장애인 콜택시 지역제한 해제 추진

법제처, 20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밝혀



지역제한 해제에 대한 기대로 장애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장애인콜택시.

장애인콜택시 이용자들의 가장 큰 불만인 ‘지역제한’이 해제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지난달 2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 업무보고에서 “2011년부터 장애인 등 복지 혜택이 미흡한 계층이 법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당 시·도에 사는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었던 장애

인 콜택시의 지역제한을 해제, 장애인이 콜택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친서민 법제 개선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장애인콜택시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의 운영 규정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을 제한한 운영 규정으로 인해 장애인들의 이용 불편을 초래해 왔다.

65세 이상에 부가급여 추가 지원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내년 1월부터 차상위 초과 계층이면서 65세 이상인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게 월 2만원의 부가급여가 추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부가급여 지원대상 확대를 골자하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결된 개정령안에는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계층에 대한 부가급여 2만원 지원 내용이 신설돼 있다.

복지부는 이에 따른 추가지원 대상자를 5만2000명으로 잡고 있으며, 84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이 예산은 내년 예산에 반영돼 있다.

현행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차상위 초과 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면서 65세 이상인 경우 부가급여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출처-에이블뉴스〉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통과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30일(목) 민주당 시의원 79명 중 76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를 상정·의결했다.

자립생활조례에는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시설 퇴소 장애인 지원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중증장애인에게 시비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 지원해야 한다. 또한 자립생활체험 및 자립생활가정 운영을 통해 시설퇴소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비 지원으로 각종 자립지원서비스를 제

서울시의회, 30일 본회의 열고 상정·의결



지난달 3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모습.

©이상호 의원실

공해야 한다.

장애인자립생활조례의 통과에 장애인들은 환영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시장애인조례

제개정추진연대(이하 추진연대)는 조례가 통과된 이날(30일) 논평을 내고 “자립생활조례 제정은 서울시의 장애인 관련 지원

정책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게 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연대는 “자립생활조례는 시설위주의 중증장애인 정책에서

자립생활을 보장하는 정책의 수립과 장애인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으로 개별적 욕구 중심의 서비스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리고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선언적 명시에 그치지 않고, 그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강제성을 갖추게 된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는 조례에 맞춰 즉각 자립생활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해 조례의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의회가 같은 날 ‘2011년 서울시 예산안’을 의결함에 따라 내년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 예산은 959억원으로 확정됐다.

〈출처-에이블뉴스〉

“중증 장애인이 하이킥을?”

법률구조공단 도움으로 누명 벗어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 사람을 걷어차 다치게 했다는 황당한 누명을 쓰고 기소됐다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명예를 회복했다.

지난달 28일(화) 법률구조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김모(54)씨는 대구의 한 투자회사 사무실에서 이 회사 직원 윤모씨의 가슴을 발로 차 전치 4주의 갈비뼈 골절상을 입혔다는 혐의(상해)로 약식기소됐다.

김씨는 투자실패 문제로 윤씨와 다투다 목 뒷부분을 손으로 한 차례 때렸을 뿐 가슴을 차거나 갈비뼈를 부러뜨린 적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 검찰과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목격자 진술, 김씨의 폭력 전과 등 범행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와 정황이 뚜렷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김씨는 군 복무 시절 허리와 다리를 다쳐 엉덩이 부위의 고관절을 50도 이상 굽힐 수 없어서 사람의

가슴 높이로 발을 들어 올리는 일은 불가능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씨의 요청으로 법률구조에 나선 공단은 ▲김씨의 신체상태로는 발차기할 수 없다는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치료받은 부위는 가슴이 아니라 머리와 허리라는 점 ▲상해진단서가 사건 발생 한 달 뒤 발급됐다는 점 ▲윤씨와 목격자 진술이 일부 다르다는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강력히 주장했다.

공단 측 변호인의 집중적인 추궁에 윤씨는 법정에서 “사실은 상해진단서를 받기 며칠 전에 회사의 부도로 다른 사람과 싸운 일이 있다”고 털어놓아 김씨가 아닌 다른 사람의 폭행으로 다쳤을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또 김씨가 여러 건의 폭행 사건을 저지른 전과자이기는 하지만 다리를 사용한 폭력은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도 김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달 24일(금)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해 억울함을 풀어줬다.

인권위, 시각장애 여학생 안마강요 직권조사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A맹학교 사감교사의 시각장애 여학생 안마 강요 사건에 대해 인권침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11일(화)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기초 조사 결과 A맹학교 사감교사가 지난해

10월 15일 22시경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시각장애 여학생(18세)을 사감실로 불러 해당 학생의 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발목 통증 치료를 위해 10여 분간 안마를 시행하게 했다.

사감교사의 성추행이나 성희롱 의사가 명백했다고 보기 어

려운 점이 있으나 이와 같은 맹학교에서의 행위는 교사와 학생 간이라는 특수 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관행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점과 피해 여학생에게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었다는 점 등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된 것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기관에서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국내 사회적기업 500개소 돌파

고용노동부, 신규인증 97개 기관 발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산하 시설인 용인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내에 위치한 용인시의 제1호 사회적기업 ‘쿠키트리’

국내의 사회적기업이 500개소를 돌파했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지난달 23일(목) 2010년의 마지막인 ‘제4차 인증 심사’를 실시한 결과, 97개 기관을 신규로 인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0년 12월을 기준으로

국내에는 총 501개의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게 됐다.

이번에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에는 중증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웹와치주식회사(서울소재, 정보소외계층 접근성이 높은 웹사이트 개발), 사회복지법인 주내

자육원 구두만드는풍경(경기도 파주시 소재, 구두 제조·판매) 등이 포함돼 있다.

나영돈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한 회차에 100개에 육박하는 사회적기업이 인증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과 열기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전한 뒤 “내년부터는 자치단체, 기업 뿐 만 아니라 역량 있는 NGO, 종교단체의 참여를 이끌어 내어 시민사회 주도의 지역 밀착적이고 창의적인 모델을 더욱 많이 발굴해 전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전문가 의견수렴 후 오는 2011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을 수립, 내년도 1/4분기에 1차 인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201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복지·복지 등 알아야 도움 되는 올해 달라지는 제도 소개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 따르면 올해부터 각 부처 등 행정기관의 주요제도 중 227건이 변경·개선된다. 이 중 실질적으로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

달라지는 제도 중 알고 있으면 가계에 도움이 되는 장애인 관련 제도를 비롯한 주요정보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봤다.

장 애 관 련

▲장애인연금

올해 50만원(부부 80만원)인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이 내년 부터 53만원(부부 84.8만원)으로 3만원 인상된다.

장애인연금 소득산정 시 공제되는 근로소득 범위도 기존 37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되고, 65세 이상의 차상위 초과자 중 증장애인에겐 부가급여가 2만원 지급된다.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TF ☎02-2023-8059〉

▲발달장애정밀진단비

유소견 의료급여수급권자에 게만 지원되던 발달장애정밀진단비 지원이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지원돼 정밀진단에 따른 가족의 비용부담이 완화된다.

국가영유아건강검진 결과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올해부터 1인당 최대 40만원의 발달장애정밀진단비를 제공받아왔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지원범위가 차상위계층 2만 4,450명까지 확대된다.

또한 정밀진단 결과 발달장애로 진단을 받은 아동은 재활치료바우처사업으로 연계돼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22만원, 차상위계층은 월 20만원 상당의 바우처가 제공된다.

〈문의: 보건복지부 암정책과 ☎02-2023-7564〉

▲장애인 편의제공

학교, 보육시설, 병원 등에 대한 장애인 편의제공이 확대 적용된다.

내년 4월 11일부터 국·공·사립 각급 학교, 국·공립유치원, 영재학교와 영재교육원,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 중 영유아 100인 이상 시설은 교육활동을 위한 편의제공과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 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 사업장은 고용분야 정당한 편의 제공의무가 부여되며, 동 사업장의 사용자와 노동조합관계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도 정보통신·의사소통을 위한 편의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

내년 5월 11일부터는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편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또는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계서비스 포함)를 확보·제공한다.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02-2023-8644〉

▲장루·요루 환자

장루·요루 환자(장애인)의 재료대는 요양비로 지급된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2-2023-7418〉

주 요 제 도

▲보건복지 분야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 지원에 중점을 둔 항목의 보장성이 확대된다. 고가 치료비 또는 약값 때문에 적정 치료를 받을 수 없었던 암환자들을 위해 넥사바정 등 항암제, 양성자치료 등 고가 암 치료 기술이 급여로 전환된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은 지난해 30만원에서 올해 40만원까지 늘어난다. 제1형 당뇨병 관리 소모품,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제 등 신생아 관련 항목에 대한 급여가 확대될 예정이다. 주로 노인층 환자가 많은 골다공증 치료제의 보험급여도 확대

된다.

난임 가정을 위한 정부 지원 시술비도 더욱 확대, 시행된다. 올해부터는 체외수정시술비 지원금액이 회당 150만원(기초 270만원)에서 180만원(기초 300만원)으로 늘어나며, 지원횟수도 지난해보다 3회에서 4회(단, 4회차 지원은 100만원 범위)로 많아진다.

▲주거분야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후속조치에 따라 올해부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이 확대·시행된다. 기존에는 결혼한 지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국민주택기금 대출 신청을 할 때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자야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다.

또한 신혼부부가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는 소득요건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완화된다.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경우에는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시 현재 적용중인 0.5%p 우대금리(5.2%→4.7%) 외에 추가로 0.5%p 인하된(4.7%→4.2%)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는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85㎡ 초과포함)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까지 특별공급주택 규모가 확대된다. 단 공급물량은 다 특별공급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3%로 한다.

▲교육·양육 분야

오는 3월부터는 보육시설을 미이용하는 차상위 이하 가구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2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12개월 미만의 아동은 월 20만원, 24개월 미만은 월 15만원, 36개월 미만은 월 10만원이 지원된다.

유아학비 지원은 만 5세와 동일하게 만 3,4세에게도 소득하위 70%이하까지 정부지원단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캡처.

전액이 지원된다. 지원단가는 국·공립 5만9천원, 사립 17만 7천원으로 만 4.5세 유아가 해당되며, 만 3세는 19만 7천원이 지원된다.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은 중산층까지 확대되며, 맞벌이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지원 기준액 전액을 지원받는 가구의 범위가 영유아가구 소득 70% 이하로 450만원인 가구까지 전액 지원된다. 맞벌이가구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 75%만 반영함으로써 부부 소득 중 낮은 소득의 25%를 감액했던 지난해보다 올해 더 많은 가구가 지원받는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가정의 자녀에게는 가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 지원된다.

오는 3월부터는 맞벌이나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를 위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 운영된다. 유치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연중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며, 아침 및 저녁 식사는 무료 제공된다.

또한 저소득층 대학생 중 성적 우수 학생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등록금이 지원된다. 소득 5분위 이하이면서 성적이 A학점 이상인 대학생 중 만 8천명을 선발해 연간 최대 500만원의 등록금이 지원되며, 특히 성적이 A+이상인 대학생 중 천명에게는 연간 최대 1,000만원의 등록금이 지원된다. 장학생 선발 관련 내용은 1학기가 시작되기 전 한국장학재단이 공지할 예정이다.

▲고용·노동 분야

오는 7월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연차휴가가 10일

이상에서 15~25일로 조정된다. 또한 보상휴가제도 도입, 생리휴가 무급화는 물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이 3개월로 확대된다.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직장을 옮겨야 하는 근로자에게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급대상 및 신청자도 확대된다. 전직지원 서비스 제공대상에 고용보험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근로자도 포함됐으며, 전직지원 서비스 신청자격이 근로자까지 포함된다.

육아휴직급여는 지난해 정액제(월 50만원)에서 개인별 임금수준과 연계한 정률제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되, 급여 중 일부(15%)는 복귀 후 6개월 후에 지급해 근로자의 육아휴직 후 이직률을 낮추도록 개선된다.

이밖에도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도 퇴직급여제도 혜택(2010년 12월 1일부터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소득보전 분야

올해부터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이 74만원(부부 118.4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만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387만명이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소득산정 시 공제되는 근로소득의 범위가 지난해 37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 밖에 다양한 변경·개선사항이 담긴 책자는 전국 각처에 배포될 예정이며 기획재정부(www.mosf.go.kr) 및 각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출처-에이블뉴스〉

2010년 새보람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75.6%가 만족...복지정보 획득에 큰 도움 2011년 건의사항 “탐방, 전문정보, 국외 소식란 신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정록)에서 매월 발행하고 있는 장애인신문 ‘월간 새보람’의 지난 2010년을 평가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독자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2010년 새보람 만족도 조사’가 2010년 12월 28일(화)부터 2011년 1월 7일(금)까지 실시됐다. 지면을 통해 만족도 조사의 ‘결과’에 대해 독자들에게 설명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보람 건의사항 등을 비롯한 ‘새보람 만족도’에 대한 질문이 담겨있다.

■ 새보람 독자 정보

1. 성별, 연령, 거주 지역

만족도 조사의 참가자 중 63.5%(172명)가 남성, 여성은 36.5%(99명)를 차지했다. 연령은 30~50대가 80% 가까이 차지했고 거주 지역은 경남, 경북, 서울, 전남, 광주 순이었다.

<표-1~2 참조>

2. 장애 유형 및 등급

먼저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독자 271명 중 장애인당사자는 222명으로 ‘81.9%’의 다수를 차지했다. 또한 장애인당사자 222명 중 1~3급까지의 중증장애인이 63.9%를 차지했다.

또한 장애유형은 지체장애인이

이 89.2%(198명)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고 뇌병변(17명), 시각, 청각, 안면, 신장장애인이 그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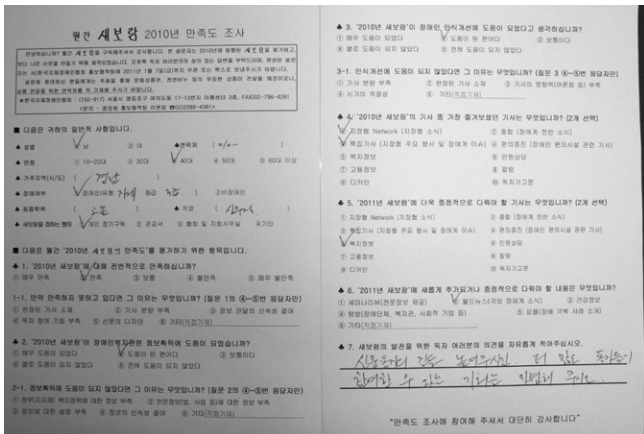
<그래프 1,2>

3. 학력 및 구독방법

학력은 중학교~고등학교 졸업이 57.1%(155명)로 과반을 넘

은 한편, 학사(대학교 졸업)~박사까지의 고학력군도 28.7%로 높게 나타났다.

<표-3 참조>
또한 독자들은 새보람을 협회 및 지회 사무실,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해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전국 산하 조직을 통해 가장 많이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새보람 만족도 조사지.

■ 조사 개요

조사는 ‘만족도 설문 용지’를 전국에 배포함과 동시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되었고, 2010년 12월 28일(화)부터 2011년 1월 7일(금)까지 11일간의 조사 기간을 통해

총 271명의 전국 독자들이 설문에 참가했다.

만족도 설문지는 성별, 연령, 지역, 장애여부 및 유형, 학력 등 ‘독자정보’에 관한 사항과 기사선호도, 정보획득여부, 장애인인식개선 여부, 2011년 새

<표-1 : 만족도 조사 참가자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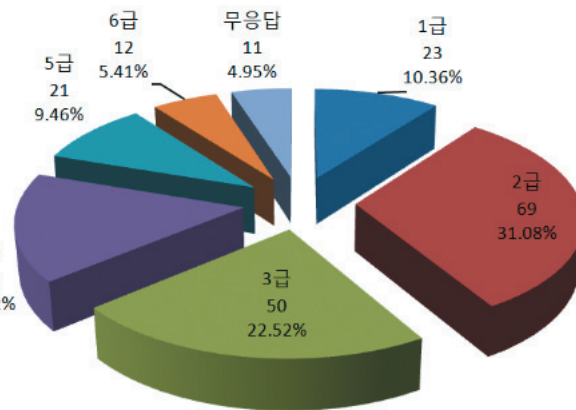
성 별	응답자수	비 율
남	172	63.5%
여	99	36.5%
무응답	0	0.0%

<표-2 : 만족도 조사 참가자 연령>

연령대	응답자수	비 율
10~20대	40	14.8%
30대	77	28.4%
40대	80	29.5%
50대	52	19.2%
60대 이상	20	7.4%
무응답	2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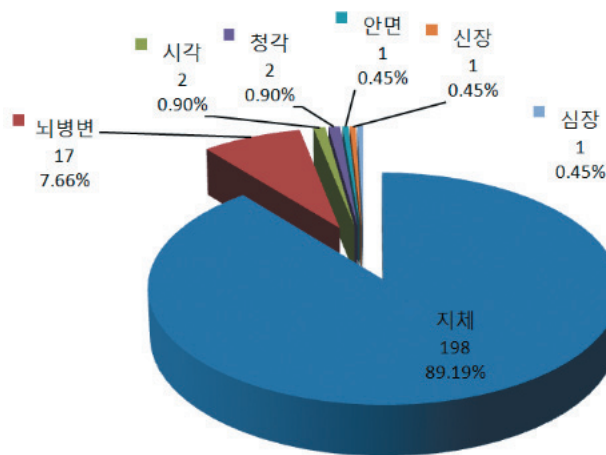
<그래프1>

만족도 조사 참가자의 장애등급



<그래프2>

만족도 조사 참가자의 장애유형



〈표-3 : 만족도 조사 참가자의 학력〉

학력	응답자수	비 율
초등학교 졸업	22	8.1%
중학교 졸업	70	25.8%
고등학교 졸업	85	31.3%
학사	45	16.6%
대학원 석사	21	7.7%
대학원 박사	12	4.4%
무응답	16	5.9%

〈표-4 : 새보람 만족 여부〉

번호	만족여부	응답자수	비 율
①	매우만족	60	22.1%
②	만족	145	53.5
③	보통	43	15.8%
④	불만족	18	6.6%
⑤	매우불만족	5	1.8

〈표-5 : 불만족 이유〉

이유	응답자수	비 율
한정된 기사 소재	5	21.7%
정보 전달의 신속성 결여	8	34.8%
신문의 디자인	8	34.8%
독자 참여 기회 부족	2	8.7%

■ 새보람 만족도

1. 전체적인 만족 여부

독자들은 작년 한 해 동안 발행된 새보람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만족한다”와 “만족한다”는 의견이 75.6%(205명)의 다수를 차지했고 “보통”이 15.8%(43명),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이 6.6%(18명)과 1.8%(5명)를 각각 기록했다. 〈표-4 참조〉

또한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을 답한 사람들은 ‘정보 전달

의 신속성 결여’와 ‘신문의 디자인’을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 꼽았다. 〈표-5 참조〉

2. 정보획득 및 인식개선 도움 여부

2010년 새보람은 ‘장애인복지정보’를 획득하는 데 유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3.4%(199명)가 “복지정보를 획득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고,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18명(6.5%)로 소수에 그쳤다. 〈표-6 참조〉

또한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답한 응답의 27.7%는 ‘정보의 신속성 결여(27.7%)’를 이유로 들었고, ‘정보에 대한 설명 부족(22.2%)’, ‘전문정보(법, 사업 등) 부족’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영향력은 다소 낮게 나타났다. “도움이 되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29.1%(79명)에 그친 반면, 과반수에 가까운 46.5%(126명)참가자들이 “보통이다”라고 답했고,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답한 사람이 24.3%(66명)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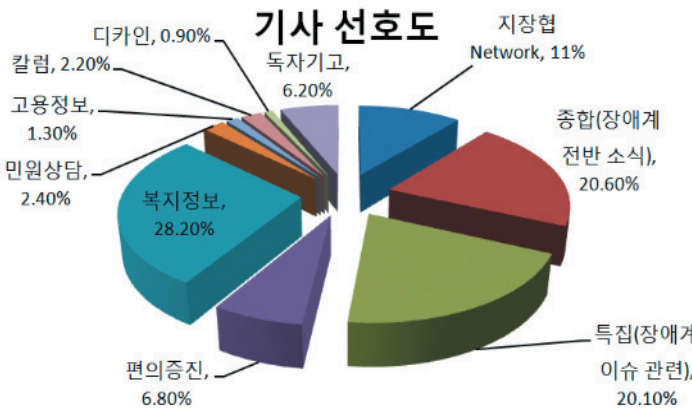
〈표-6: 정보획득 도움 여부〉

번호	도움여부	응답자수	비 율
①	매우 도움이 되었다	83	30.6%
②	도움이 되었다	116	42.8%
③	보통이다	54	19.9%
④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13	4.7%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5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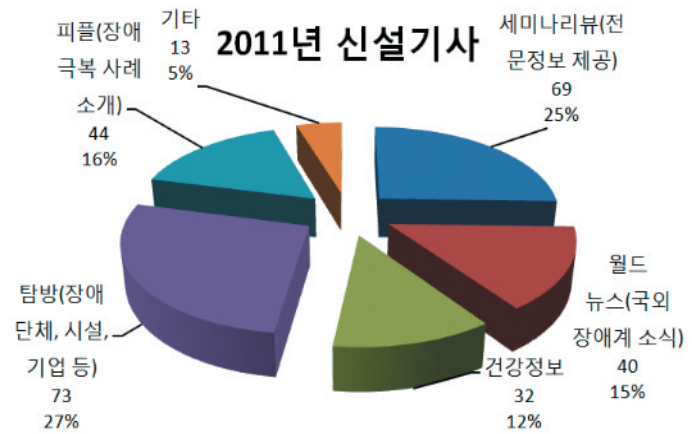
〈표-7 : 장애인 인식개선 여부〉

번호	도움여부	응답자수	비 율
①	매우 도움이 되었다	13	4.8%
②	도움이 되었다	66	24.3%
③	보통이다	126	46.5%
④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33	12.1%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10	3.7%
	무응답	23	8.5

(그래프3)



(그래프4)



차지했다. 〈표-7 참조〉인식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는 한정된 기사 소재, 시기의 적절성, 기사 분량 부족 등이 이유로 꼽혔다.

■ 기사 선호도

새보람 독자들이 지난 2010년 ‘가장 즐겨보았던 기사’는 ‘복지정보’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28.2%가 선택한 ‘복지정보’는 새보람 16~17면에 게재되고 있는 기사로, 정부 정책 및 기관, 지자체 등에서 실시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장애인 관련 복지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래프3〉

또한 한 달 동안 장애계에서 일어난 소식이나, 주요 정책에 대해 소개하는 ‘종합’과 양경자 사태를 비롯해 장애계의 핫 이슈에 대해 다룬 ‘특집’도 높게 나타났다.

이밖에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소식이 담긴 ‘지장협 Network’와, 무장애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센터장 김정록)의 활동 및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가 담긴 ‘편의 증진’이 뒤를 이었다.

■ 2011년 새보람에 바란다

‘2011년 새보람’에 대한 독자들의 바램은 기사 선호도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과반수가 넘는 62.6%의 응답자가 ‘복지정보’와 ‘특집’, 그리고 ‘종합’ 기사를 더욱 중점적으로 다뤄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 대한 활동사항과, ‘독자기고’를 확대해 더 많은 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래프4〉

특히 ‘2011년 새보람’에 새롭게 추가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도 밝혔는데, 전국의 지체장애인협회와 장애인시설(복지관, 작업장 등), 기업(대기업 사회공헌 부서,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탐방’ 기사를 새롭게 신설해 줄 것을 26.9%(73명)의 응답자가 요구했다.

또한 69명(25.4%)의 응답자가 장애인 관련 법·정책 등에 대한 전문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고, 국외 장애계 소식을 전하는 ‘월드뉴스’와 감동적인 장애 극복 스토리가 담긴 기사를 신설해 줄 것을 희망했다.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주신 전국의 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월간 새보람’은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여러분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것이며, 더 나은 신문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중국 북경 관광지의 ‘장애인

강제규정이 아닌 ‘지침적 성격’의 장애인보장법 문제 있어 ‘권장수준’의 편의시설…경제력에 버금가는 복지환경 요원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정록)에서 지난 1월 5일(수)부터 8일(토)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직원연수’를 통해 짧은 일정이나마 중국 수도인 베이징을 대표하는 관광지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다.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 장애인 인구수만 8천만 명이 넘는 중국. 설레임을 안고 살펴본 중국 베이징 관광지의 ‘장애인 편의시설 수준’은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 이번 새보람에서는 베이징의 시내와 대표 관광지인 만리장성과 천안문광장, 자금성, 명나라 13황제릉의 편의시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만리장성 전경.

중국에서는 장애인을 ‘잔질인(殘疾人)’이라고 하며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장애인이 있다. 장애인 수는 2007년 기준으로 8천 296만명이며, 전체 인구의 6.34%가 장애인으로 우리나라의 4.5%보다 많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장

애인 유형을 분류하는 방법이 일상 생활을 함에 있어 불편을 겪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수 십가지의 장애유형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15가지 장애유형이 있는데 반하여 중국은 장애유형이 5가지정도 밖에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장애인

출현률 4.5%정도 보다 더 높은 6.34%를 보이는 이유는 의료수준의 낙후로 예방이나 치료 및 재활에 어려움을 겪어서 인듯하다. 이렇게 많은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중국의 장애인보장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지침적 성격’이 강하며 그리고 장애인들은 집단촌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장애인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편의시설의 설치는 의무가 아니라 ‘권장수준’인 듯했다. 이러한 짧은 사전지식을 갖고 지난 5일(수)부터 8일(토)까지 중국 북경에서 만리장성과 천안문광장, 자금성, 명나라 13황제릉 등을 둘러보면서 편의시설이 얼마나 잘 설치되어 있는가를 점검해 보았다. 보도의 유도블록과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그리고 접근성표지에 대하여 집중 점검했다.

먼저, 북경시내의 보도<사진 1>에는 유도블록이 많이 설치되어 있었다. 하지만

시스템에 의해서 설치한 것이 아니라 기준 없이 설치한 듯 한 인상을 주었다. 서태후가 만들었다는 인공정원인 이화원 근처에는 보도 폭이 50cm 정도인데 그 중앙에 유도블록을 설치해 두었으며, 그 길도 50m를 지나면 끊어진 길이였다.

만리장성<사진 2>의 경우에는 주차장에서부터 만리장성 초입부까지 유도블록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중간까지만 설치되어 연속성이 없었다.

다음으로,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의 설치는 화장실마다 거의 설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실제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하기에는 공간이 부족했다. 휠체어를 타고 대변기 칸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칸으로 되어 있어 전시용인 듯한 느낌을 받았다<사진 3>.

청소도구함으로 쓰이는 것은 마찬가지로였으며 소변기<사진 4>의 손잡이는 그 기능을 외면한 채 수평손잡이가 거꾸로 달려 있었다. 반면 세면대<사진 5>에 설치된 손잡이는 우리나라 편의증진법의 기준과는 조금 다르지만 나름대로 편의증진을 실천한 모습이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 접근성표지는 다양한 형태들이 사용되고 있었다. 접근성표지가 부착된 모든 화장실마다 모양이 모두 다르게 부착되어 있었으며 그 역시 ISA(International Symbol of Accessibility) 표준형이 아니었다.

접근성표지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시설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표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표



사진1 : 북경 시내의 보도에 설치된 점자블록.



사진2 : 만리장성 초입부의 끊어진 유도블록.

편의시설' 살펴보기

준화법에 의하여 KS A 0901 공공그림안 내표지라는 고시에 의하여 'KS 표준형'이 2004년부터 강제로 실시되고 있으며, 'ISA 표준형'은 1969년에 세계재활협회가 제작하여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이 역시 지켜져야 하는 하나의 규범이며, 접근성표지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고 국내 및 국제적으로 권위와 권한을 가진 하나의 표식이다. 이미 ISA의 경우 전 세계에 알려져 있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도 그것을 그대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이 디자인은 독자적으로 변경하여 가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ISA의 경우 각 치수가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만약에 그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ISA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화장실의 설비가 고려되어 설치되어 있다고 하여 접근성표지를 표시하고 있는데, 그 바로 앞에 단차가 있어 실제로 휠체어사용자가 이용할 수 없는 예를 자주 볼 수 있다.

또한 일부 장애인에게는 이용할 수 있

지만, 다른 장애인에게는 이용할 수 없는 시설, 또는 보호자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접근성표지를 표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본래 접근성표지를 부착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사용방법은 접근성표지의 의미를 오해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를 혼란시키고 비장애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지체시키게 될 수도 있다. <사진 6,7,8,9,10,11,12>

비약적인 경제성장으로 제2의 강대국으로써 제일을 추구하고 있는 중국이지만 아직 장애인 복지정책 그 중에서도 편의시설에 대한 정책은 요원해 보였다.

홍내는 내고 있지만 실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행동특성을 고려하여 설치하지 않은 편의시설은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장애물을 제거하려고 설치한 편의시설이 오히려 장애물이 되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전 세계에서 장애인이 물리적 장애로 인하여 사회통합 및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는 일이 하루 속이 없어지기를 바란다.



사진 6 : KS표준형.



사진 7 : ISA 표준형.



사진 8 : ISA 표준과 비슷하지만 다름.



사진 9 : KS 표준과 유사하나 다름.



사진 10 : 그림7과 유사하나 다름.



사진 11 : 알아 볼 수 없는 형태



사진 12 : 두 가지의 잘못된 접근성 표지.



사진 3 : 비좁은 공간에 걸레보관 장소 활용.



사진 4 : 상부 수평손잡이가 거꾸로 설치되어 있음.



사진 5 : 세면대 손잡이.

기사제공

지체장애이편의시설 중앙지원센터
홍 현 근 팀장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 맞벌이 부부는 공제대상 부양가족 선택 가능

맞벌이 부부는 부양하는 직계 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에 대해 부부 중 누가 공제받을지 선택할 수 있다. 부부간 소득금액의 차이가 크다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받아야 유리하다.

직계존속, 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 시부모 등) 및 형제자매(처남, 시누이 등)도 포함된다.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공제 가능하지만, 형제자매는 함께 거주해야한다.

다자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수로만 계산하기 때문에 두 명인 자녀를 부부가 각각 기본공제 받은 경우 다자녀 추가공제가 불가능하다. 6세 이하 추가공제(1명당 100만원)는 기본공제를 누가 받는지 관계없이 부부 중 한 사람이 선택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보장성보험의 계약자가 남편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경우 남편이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다. 부양가족의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등 특별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다.

■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 기본공제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소득이 있어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공제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은 총 급여로 계산하면 500만원이하이고, 사업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단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인 부양가족은 소득금액에 상관없이(20세 이하, 60세 이상의 나이 요건 충족 필요)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공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매년 한번씩 돌아오는 연말정산의 시기다. 똑같은 금액의 세금을 내도, 소득공제 자료를 누락 없이 준비하는 사람이 더 많이 돌려받는다. 오는 지난달 15일(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한 본격적인 ‘2010년 소득공제 자료’ 제공에 앞서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주요 소득공제 항목을 소개한다.

인 뿐만 아니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연말정산에서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질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부양가족이 장애인으로 인정되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며,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한 장애인 재활교육 비용은 전액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며,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에 지급한 보험료는 100만원까지 보험료공제가 적용된다.

■ 무주택자가 주택취득 시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는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연 1,000만원, 30년 이상이면 연 1,500만원이다. 다만 근로자가 세대원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고,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아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가 가능하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은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 차입하고, 채무자가 주택의 소유자와 동일해야한다. 이후 새로운 주택 구입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세대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분양권(분양가액 3억원 이하)을 취득하고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분양권을 2개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 총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는 월세 소득공제 가능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에 대해 지출한 월세(사글세 포함)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이고, 배우자 또는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만 대상이 된다.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월세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공제한도는 주택마련저축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금액과 합해 연 300만원이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는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액 지급증서류(현금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를 제출해야 한다. 주택월세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esave.go.kr)를 방문해 신고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부영 등은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주의할 점은 ‘주택 월세 소득공제’를 받는 금액은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도, 신용카드 공제금액에서 제외해야한다.

■ 무주택자가 차입한 전세금의 원금과 이자상환액 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 또는 개인으로부터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의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상환한 원금과 이자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근로자, 배우자 등 세대의 구성원 모두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공제한도는 주택마련저축과 월세 소득공제금액과 합해 연 300만원이다. 다만,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전세금의 경우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이고, 배우자 또는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가 2010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자금만 대상이 된다. 여기에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한다.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전세금

은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등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돼야 한다.

■ 2009년까지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폐지돼 2010년 신규 가입한 근로자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2009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2010년 총급여가 8,800만원이하인 경우에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 중 2010년 이후 가입기한 말료로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주택마련저축의 공제한도는 월세 소득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와 합해 300만원이다.

■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와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금액도 연말정산에서 기부금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20세 이하의 직계비속만 해당된다.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등이 기부한 금액은 기부금공제 대상이 아니다. 또, 2010년 연말정산부터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도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나,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해 판단된다.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2010년부터 신용카드공제에서 직불카드 공제율은 25%로 높아져,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공제율 20%) 보다 유리하다.

〈출처-에이블뉴스〉



국세청 홈페이지 캡처화면.

서울, 온라인으로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가능

‘OK주민서비스포털’에서 서비스 제공

올해부터 서울지역 장애인들이 온라인으로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이하 서울시)는 내년부터 행정안전부와 연계해 ‘OK주민서비스포털(www.oklife.go.kr)’에서 장애인 특별공급 온라인 신청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27일(월)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이 직접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불편이 해소

되고, 종합접수 산정과 서류 확인 등 수작업 업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신청절차는 먼저 OK주민서비스포털에 회원가입과 인증을 거쳐 공고된 신청기간 안에 공급지역·단지·신청형(㎡) 등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집계된 본인 점수를 확인할 수 있고 다음 번 신청할 때도 이전 등록정보를 불러와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통합망(행복e

음)과 행정정보가 연계돼 신청서, 장애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의 서류제출과 확인절차가 최소화돼 업무 효율성도 개선된다.

서울시는 시각장애인과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고려해 방문신청은 현행대로 유지, 온라인 신청과 병행할 계획이다. 온라인 신청은 이번 달 말 시범도입하고 올해 1월까지 보완해 다음달(2월)부터 본격적으로 제공된다.



온라인으로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할 수 있는 ‘OK주민서비스포털’의 캡처 화면.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은 장애인 무주택세대주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60㎡이하,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건설하는 85㎡이하의 주택 중 일정 물량을 추천하고 알선하는 제도다. <출처-에이블뉴스>

충남 천안, 단국대 치과병원에 ‘장애인구강센터’ 개설



단국대 치과병원에 전국 최초로 개설된 ‘장애인구강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소재한 단국대학교 치과병원(병원장 김기석)에 전국 최초

로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개설돼 지난달 30일(목)부터 진료를 시작했다.

국비와 지방비 5억원씩 모두 10억원을 지원받아 개설한 단국대 치과병원의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전신마취기 및 진정마취기, 환자감시장치 등을 구비한 장애인 전용 수술실과 장애인 전용 치과진료대, 전신CT 등을 갖추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인 치과 진료를 하게 된다.

또한 이 센터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구강관리사업과 보건소 및 지역사회 치과병원과 연계한 장애인치과 예방사업 전개, 장애인 전문인력 교육 등도 맡게 된다.

이내에 전년도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을 도보 및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하고 장애인 생산품 개발을 위해 산학협력 및 기술지도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도 지원해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 평가해야 하며 공공기관이 장애인 생산품 구매 촉진시책 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원을 지원받아 장애인 복지관, 사회복지관, 관련 단체, 지하철역사 등 50곳에 충전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충전기가 설치되는 기관 및 단체 등에는 충전을 도울 수 있는 장애인 30명을 배치, 일자리도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천, 장애인콜택시 차량 및 인력 확충



인천광역시시는 지역 내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인콜택시를 증차했다.

인천광역시(시장 송영길, 이하 인천시)는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인콜택시 차량과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지난 8일(토) 밝혔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현재 104대인 장애인콜택시를 올해 122대, 내년 150대로 늘리고 택시 대기시간을 줄이고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운전원과 상담원 23명을 확충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시는 장애인콜택시 차량 보유대수에 비해 운전원이

부족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운전 자원봉사자를 선발, 배치해 혼잡시간대 운행차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가 지난 2006년부터 운영 중인 장애인콜택시는 인천지역 1~2급 장애인과 3급 뇌병변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으며, 요금은 기본요금(2km 이내) 1천 원에 2~10km 구간은 1km당 200 원, 10km 초과 구간은 5km당 300 원이 추가된다.

※이용문의(☎1577-0320)

전남,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화

전라남도(도지사 박준영)는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이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남도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 조례’를 제정해 지난 달 27일(월) 공포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이 조례안은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해야 하는 대상기관의 범위를 전남도와 그 소속 사업소, 직속

기관, 시·군과 그 소속 행정기관, 도 및 시·군 산하 출연·투자·출자기관 등으로 명시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필요 물품을 구입할 때 장애인 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으며 매년 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시책과 우선 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대전, 장애인 이동편의 ‘행복충전소’ 운영

대전광역시(시장 염홍철, 이하 대전시)는 올해부터 중증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한 ‘행복충전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행복충전소’는 전동 스쿠

터 및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장애인 등이 이동 중 배터리 방전 때 어려움이 없도록 충전기를 설치해 충전을 지원하는 곳으로, 대전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1억

원을 지원받아 장애인 복지관, 사회복지관, 관련 단체, 지하철역사 등 50곳에 충전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충전기가 설치되는 기관 및 단체 등에는 충전을 도울 수 있는 장애인 30명을 배치, 일자리도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구 수성, ‘장애인·임산부 민원창구’ 운영

대구 수성구청은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장애인과 임산부 등을 위한 전용 민원창구를 개설, 지난 3일(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장애인·임산부 전용 창구는 구청 종합민원실 통합민원창구와 여권민원창구 등 2곳에 설치되며 장애인과 임산부, 영·유아와 함께 온 사람은 우선적으로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전용 창구에는 전담직원이 배

치되며 평상시에는 접수 순서대로 민원을 처리하다가 전용 창구 이용대상 민원인이 찾게 되면 우선적으로 상담 및 민원을 처리해 주게 된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장애인과 임산부 등에 대한 배려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반 주민의 관심을 높이고 출산장려 정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 전용창구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중기청, 장애인 맞춤 창업서비스 지원

올해부터 장애인을 위한 맞춤 창업 서비스가 지원된다.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이하 중기청)은 이달부터 창업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 500명을 대상으로 진로설정에서 성공창업까지 일괄 지원하는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200억 원을 투입,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전업자를 대상으로 '원스탑

패키지 창업지원'과 '장애인창업자금 및 창업보육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한다.

'원스탑 패키지 창업지원'은 창업마인드 개선 및 창업아이템 분석 등의 창업기초교육(12시간), 창업전문가 심층상담을 통한 진로설정, 업종특화교육(100시간), 창업인턴(6주) 등을 이수하도록 해 실제 창업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또한 예비창업자 및 7년 미

만의 창업자에 개인당 1억원 한도내에서 연리 3%, 7년 상환(거치 2년)의 장애인창업자금을 지원한다. 창업자금을 위한 예산으로는 150억원이 쓰인다.

중증장애인 및 저소득 장애인(최저생계비 200% 이하)에게는 사업장과 종합창업컨설팅을 제공하며,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업종창업인 큐베이팅도 20명에 한해 시범

지원한다.

이밖에도 장애인 창업 지원을 위한 전국 권역별 7개 교육기관을 지정해 민간 창업전문위원 및 후원업체 각각 100명을 관리, 상담·교육·컨설팅 및 창업인턴 사업체로 활용함은 물론, 기술형 아이템을 반영한 30개의 아이템을 발굴, 보급할 계획이다. 창업자에 대한 경영애로 상담제공과 분기별 모니터링(3년) 등도 연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세부 내용 및 기타 문의는 홈페이지(www.debc.or.kr)이나 전화(02-326-1339)로 가능하다.

한편 이번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는 서울(1월 20~21일), 부산(1월 17일), 대구(1월 18일), 대전(1월 19일), 강원(1월 25일), 광주(1월 26일)에서 열린다.

〈출처-에이블뉴스〉

올해부터 달라지는 장애인고용제도

장애인고용의무 100% 적용...고용부담금 인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 지난달 27일(월) 올해부터 달라지는 '장애인고용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부담 기초액은 기존 53만원에서 1인당 '월 56만원'으로 오른다.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준수하지 못한 사업주가 내야

하는 벌금 성격의 부담금이다.

임업 등 11개 업종에 남아있던 장애인고용의무 업종별 적용제외율이 없어지고 내년 부터 모든 업종에 100% 적용된다.

또한 건설업의 의무고용사업주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액 기준금액도 62억 300만원에서 70억 4,900만원으로 상향

된다.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초과해 고용한 경우 기업에 지원되던 '고용장려금'은 비교적 장애가 경한 장애등급 6급(국가유공자 6·7급 포함)인 근로자에 대해 입사일로부터만 4년까지만 지원된다.

청각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주에게 지급되던 수화통역비

용은 없어지는데, 단 기존 수급인정을 받은 사업주는 3년간 지원된다.

중증장애인지원고용에 참가하는 훈련생의 훈련수당은 1일 8,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시험고용 연수생 수당은 월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오르고, 연계고용부담금 감면액의 연도별 한도액은 기존 부담금 납부총액의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75로 조정되며, 최저임금 이상(적용 제외 인가자 불포함)만 해당된다.

이밖에 고용부담금 부과에

관한 특례로서 감면 대상인 사업주는 축소된다. 기존 상시 100~299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던 고용부담금은 상시 100~199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로 변경되며, 상시 200~299명 사업체 부과특례 적용은 종료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표준사업장 세액감면제도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2013년 말까지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는 사업주는 인정년도가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고용정보

	업종	업 체 명	근무지	연령	성별	근무내용	급여	보험	연락처	담당자
1	생산직	정립전자	서울시 광진구	55세이하	무관	PCB조립업무	월 902,88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손가람
2	생산직	이수제약	서울시 양천구	35세이하	무관	전자식금연보조제 생산	연 120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손가람
3	사무직	이수제약	서울시 양천구	30세이하	여	사무보조	연 120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손가람
4	경비직	인덕종합관리	서울 전역	70세이하	남	아파트 경비 및 보안	월 10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손가람
5	전문직	디자인여백	서울 영등포구	30세 전후	무관	편집디자인	월 9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손가람
6	상담직	평화아름 의정부성모병원	경기도 의정부	40세이하	여	콜센터 전화상담	연 160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손가람
7	미화직	신양이앤지	서울 전역	68세이하	남	아파트 미화	월 75만원	4대보험	02-2289-4321	한은희
8	미화직	유전실업	서울 전역	68세이하	여	건물 및 은행 미화	월 8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한은희
9	전문직	하플엔터테인먼트	서울 강북구	30세 전후	남	영상제작,믹싱 및 포토샵	연 170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한은희
10	전문직	디자인여백	서울 영등포구	30세 전후	무관	편집디자인	월 9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한은희
11	운전직	승학	서울 강남구	70세이하	남	과적차량단속	월 902,88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한은희
12	생산직	씨피엘	경기도 안산시	40대이하	무관	제품검사 및 사출 조립	월 902,88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한은희

‘2010 광저우 장애인아시안게임’ 폐막

중국 종합우승, 한국 3위 수성...홍석만 금 되찾아

‘2010 광저우 장애인아시안게임’이 지난달 19일(일) 오후 9시(한국시간) 개막식이 열렸던 아오티 주경기장에서 폐막식을 갖고 7일간의 열전을 마감했다. 이날 폐막식에 참석한 선수들은 7일간 흘렸던 땀과 눈물, 환희, 아쉬움을 뒤로한 채 오는 2014년 인천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다.

‘아시안게임’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열린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마지막 날 금메달 1개를 추가하며 극적으로 ‘종합 3위’ 수성에 성공했다. 한국은 지난달 19일(일) 중국 광저우 아시안게임타운 체육관에서 열린 탁구에서 금 1개와 은 3개를 획득해 총 금 27개, 은 43개, 동 33개를 땀다. 이로써 한국은 2006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아시아-태평양 장애인경기대회에 이어 종합 3위에 올랐다. 1위는 개최국 중국, 2위는 일본이 차지했다.

전날(18일)까지 이란에 금메달 1개차로 뒤졌던 한국은 이날(19일) 정은창(41)과 김정길(25)이 출전한 남자 탁구 TT4-5 단체전 결승에서 중국에 3대1(0-2 2-0 2-1 2-1)로 역전승을 거두며 소중한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로써 한국은 금메달 27개로 이란과 균형을 맞췄고, 은메달과



지난달 19일 열린 ‘2010 광저우 장애인아시안게임 폐막식’ 장면. ©대한장애인체육회

동메달 개수에서 앞서 이란(금 27개, 은 24개, 동 29개)을 극적으로 제쳤다. 하지만 이날 출전했던 남·여 TT1-3과 여자 TT4-5 경기에서 한국은 모두 만리장성에 막혀 은메달에 만족했다.

개최국인 중국은 금 185개, 은 118개, 동 88개를 따 쿠알라룸푸르 대회와 광저우 일반 아시안게임에 이어 압도적인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중국은 육상 종목에

걸린 금메달 120개 중 69개를 휩쓸고 수영에서도 81개 중 48개의 금메달을 가져갔다.

이번 ‘2010 광저우 장애인아시안게임’은 2006년 대회까지 ‘아시아-태평양 장애인경기대회’라는 이름으로 열리다 올해 처음으로 일반 아시안게임과 통합된 대회로 그 자체만으로 의미 있다는 평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개최국 중국이 자국

에 유리하게 무분별하게 장애등급을 통합, 조정해 독주의 발판을 삼았다는 점과 한국 육상 스타 홍석만(35)의 등급 재조정 이은 메달 취소 해프닝 등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이에 대해 장춘배 한국 선수단장은 “한국이 수영에서 세계신기록이 2개, 아시아 신기록이 3개를 내고도 메달 못 따는 현상이 있었다”면서 “조직위원회의 일방적인 등급 통합이 한국 선수단의 메달 획득에 어려움을 준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편 등급 재조정으로 금메달을 잃었던 한국 휠체어 육상의 간판 홍석만(35)은 폐막 하루전날 금메달을 되찾았다.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APC)와 대회조직위원회는 지난달 18일(토) 한국 측의 반론을 받아들여 홍석만이 800m T53에서 탄 금메달을 다시 인정했다.

국가별 메달 최종순위

순위	국가	금	은	동
1	중국	185	118	88
2	일본	32	39	32
3	한국	27	43	33
4	이란	27	24	29
5	태국	20	34	39

“꿈을 위해 도전하는 사람들”

청각장애 야구부 실화 ‘글러브’ 개봉

한 청각장애 야구부의 실제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영화의 제목은 ‘글러브(감독 강우석)’. 이 영화는 국내 최초 청각 장애 야구부인 ‘충주 성심학교 야구부’를 모티브로 재구성한 것으로 장애를 지니고 있지만 ‘야구에 대한 꿈’을 가지고 끝없이 노력하고 도전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영화의 스토리를 살펴보면 주인공인 프로야구선수 김상남(정재영 분)은 취중 폭행으로 상벌위원회의 징계를 받게 된다. 그런 그를 재기시키려는 정철수(조진웅 분)는 조금이라도 상벌위원회의 마음



청각장애 야구부인 충주 성심학교 야구부의 실제 이야기를 담아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글러브’

에 들고자 청각 장애 야구부인 ‘충주 성심학교 야구부’의 감독 자리에 그를 앉혀놓는다.

청각 장애인인 그들이 야구를 하는 것에 영 마음이 안갔던 김상남은 살갑게 다가오는 야구부원들에게 차갑게 대하지만 결국 자신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야구에 대한 욕구를 심어준다. 그리고 자신이 처음 야구를 시작했을 때의 ‘열

정’과 ‘꿈’을 추억하게 된다.

이루고자 하는 꿈을 위해 도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웃음과 감동으로 풀어낸 영화 ‘글러브’는 오는 20일(목) 개봉된다.

‘제9회 서울장애인권영화제 상영작품’ 공모

집행위원회, 신진감독 영화제작지원 모집도 병행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집행위원회는 ‘제9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의 상영작품과 제작지원을 받아 영화를 만들 신진감독을 공개 모집한다고 11일(화) 밝혔다.

상영작품 공모 출품대상은 장애 및 장애인권 관련 소재나 주제여야 하며, 작품의 장르는 자유다. 장애인 당사자의 작품에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자신의 창작물을 출품하고자 하는 사람은 1월 12일(수)부터 19일(수)까지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사무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상영작품으로 선정되면 4월 7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제9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에서 상영된다.

신진감독 영화제작지원 공모 대상은 극장개봉, 영화제, 방송 등에 상영된 작품이 1편 이상인 장애인 제작자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1월 12일(수)부터 오는 3월 19일(토)까지 자신이 만들었던 장애인권에 관한 30분 이내의 영상작품과 지원 서류를 갖춰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사무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제작자에게는 멘토(조언자) 시스템이 제공되고, 100만원 이내의 제작비가 지원된다.

영화제 출품작 및 제작지원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홈페이지(<http://www.420sdff.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문의 및 접수처 -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사무국

- 전화 : 02-929-9890

- 전송 : 02-6008-5789

- 이메일 : dcs03@korea.com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95번지 한얼빌딩 3층

성명서



MB 정부에 없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소통=장애인

前 장애인고용공단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소속 단체들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신임 이사장으로 이성규 씨를 제정한 고용노동부의 선택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장애계의 강력한 투쟁에 양경자 전 이사장이 자진사퇴한 후, 신임 이사장을 임명하기 위해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부터 장애계는 이성규 씨를 한 목소리로 반대해왔다.

이성규 씨는 '양경자 사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인물이며 그러한 이유로 한 장애인단체의 임원직에서

강제해임까지 당한 사람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장애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성규를 선택했다. 정부는 '섬기는 정부'라고 국정 지표를 선정 하고 있지만 現정부에 고용노동부는 없었다. 국민을 섬기고자, 국민과 소통하고자 청와대가 국정과제를 발표하는 그 시점에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과 소통이 아닌 '불통'으로 장애인계를 기만한 것이다.

지난 '양경자 사태'를 통해 우리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결과가 어떤지를 똑똑히 겪고도 깨닫는 것이 없는 고용노

동부의 능력에 경의를 표한다.

비대위 소속 단체들은 지난 4일(화) 회의를 통해 공단의 정상화가 시급하고 정부와의 갈등 및 장애계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판단, 투쟁에 나서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이성규 이사장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한다. 따라서 이성규 이사장은 자신의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이번 기회를 480만 장애인들이 주는 '마지막 기회'로 삼아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차기 총선의 공천을 받기 위한 임시거처"라는 향간의 루머에

대해 장애계가 우려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성규 이사장의 향후 행보를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며, 그의 직무수행에 문제가 있거나 장애계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경우에는 이성규 이사장은 물론, 고용노동부를 일벌백계(一罰百戒) 하기 위한 전면적인 행동에 나설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11. 1. 5.

前 장애인고용공단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단체 일동

김소재 (활동보조인)



독자기고

최민정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성남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자원봉사자)

“사랑의 발걸음”



나약하다고만 생각했던 내가 감히 장애인활동보조인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복지관 문을 두드린 지 벌써 일 년이 지났습니다.

시각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근무하고 있던 친구의 권유에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 한참을 망설였지만, 소아마비를 앓아서 장애인이 된 친언니를 곁에서 챙기는 제 모습을 보며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격려를 해주던 친구 덕분에 잠시 걱정은 미뤄두고 용기를 갖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행복으로 나아가는 첫 발걸음이었던 거죠.

각오는 하고 시작한 일이지만 두 딸 아이만 키우던 내게 다 큰 청년을 보살펴야 하는 것은 결코 녹록치 않았습니다. 처음의 그 떨림과 긴장감, 부담감은 이루 말 할 수 없죠.

하지만 작은 실수에도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에서 아주머니가 제일 좋아요'라며 웃음으로 대해주어 나를 숙연해지게 만드는 청년 덕에 이 일이 천직이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종종 걸음으로 왔다 갔다 하는 내게 수고가 많다며 힘없는 손으로 꼭꼭 다리를 주물러주는 그 청년의 순수하고 해맑은 모습 덕에 감동도 하고 나의 건강함에 감사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 이용자 보다 우리 아들이 익숙한 그 청년을 조금이라도 빨리 만나기 위해 사랑의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이 아름다운 발걸음은 내 건강이 허락하는 그 날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나의 자원봉사 이야기”

“스케줄 되냐? 뭐하냐? 놀자”
“자봉하러가서 안 된다. ㅋㅋ”
“자봉? 하루 빠지고 나랑 놀자”

친구와의 문자 내용이다. 자원봉사를 하루 빠지고 자신과 놀자는 친구와의 문자를 간단히 씹고, 직업전훈련실에 도착할 수 있었다.

저기 멀리서 은인씨가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라며 씩씩하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해주고, 미애씨도 “선생님 안녕하세요!”라며 수줍게 인사를 한다. 그 뒤로 “어! 쌤이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선생님 그동안 전 그동안 이렇게 지냈는데 선생님은요?”하는 인사말이 메아리처럼 여기저기 들려온다.

그렇다. 매주 수요일이면 나는 친구와의 달콤한 ‘밥 먹자~, 놀자’ 등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피곤해도, 몸이 힘들어도 직업전훈련실에 자원봉사를 하러 온다. 벌써 자원봉사를 시작한지 벌써 약 6개월 정도가 지나가고 있다.

직업전훈련실에서 내가 주로 하는 활동은 훈련생들과 함께 작업을 하며 직무지도를 하는 것이다. 자세히 말하면 작업을 하면서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아주고, 작업을 가지는 데 훈련하며 필요한 것들을 지도하고 있다. 또한 불량이 나는지에 대해 체크하고 그것에

대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훈련생들에게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도 해주고 있다.

내가 하는 활동을 직무지도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내가 주로 하는 활동은 수다이다. 사실 작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작업능률이 떨어져서 이야기하는 것이 자제되지만 약간씩 수다를 떨기도 하는데, 이러한 간단한 이야기를 나누는 소소한 활동이 내가 자원봉사를 하러오는 이유이다.

자원봉사를 하며 훈련생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친구처럼 다가가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공감하고 웃어주고 아파해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나는 자원봉사를 하며 이러한 공감과 소통을 중요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원봉사라고 하면 정형화된 누군가를 돕는 자원봉사만을 떠올리기 쉬운데 나의 자원봉사는 단순히 누군가를 돕는 것이 아닌 내 자신도 훈련생에게 해피 바이러스에 걸린 듯 항상 웃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어가는 자원봉사이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 여러분! 이러한 공감과 소통의 봉사 한 번 해보시지 않겠어요? ^^



독자수기

본지에 게재된 글은 지난 2010년 10월 18일(월)과 19일(화) 양일간 올림픽파크텔에서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정록)의 주관으로 개최된 『2010 전국중증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에서 ‘아름다운 배우자상(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 박성호(53세, 남) 씨의 수기로, 장애극복에 대한 강한 의지와 배우자에 대한 ‘사랑’이 가득 담긴 작품입니다.

“내 인생의 봄날을 다시 한 번 꿈꾸며”

윤성열 · 엄정숙부부 (경북 예천, 아름다운 배우자상)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누구나가 꿈꾸는 직장 농협에 입사하게 되었다. 비록 정규 직원은 아니었어도 농협차를 운전하며 부모님께 효도도 할 수 있었고, 내 삶에 낭만과 여유를 가지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었다. 적어도 그때는 말이다.

농협차를 운전하며 지금의 아내를 중매로 만나 단란한 가정을 꾸릴 때만 해도 내가 ‘장애’를 갖게 되리라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못했다. 직장에서 점점 대학 졸업자들이 들어오면서 고졸인 내 자리가 위태해 지기 시작할 무렵 내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무거운 쌀가마니를 들어야하고 운전을 해야 하는 피로감과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니 생각하고 내 몸의 아픈 증상을 그냥 지나쳤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식욕도 없고 몸무게가 줄기 시작했다. 내 건강을 염려한 나의 아내가 퇴사할 것을 권유했다. 두 아이를 생각하며 난 반대했지만 아내는 자신이 무슨 일이라도 해보겠다고 퇴사를 강하게 권유했고, 난 약간의 퇴직금을 받고 결국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힘든 일을 쉬면 팬츠를 거라 믿었지만 나의 몸은 점점 더 나빠지기 시작했다. 그냥 동네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파스 등 일회용치료제를 사용해 봐도 소용이 없었다. 큰 병원에 가서야 내 병명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불행하게도 치료시기를 놓쳐버렸고, 담당의사는 내게 “수술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단답하게 말했다.

하는 수 없이 있는 돈을 모두 털어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넉넉하지 못한 살림에 나의 병치레로 인해 나의 가족들은 너무나 힘들어 해야만 했다. 지금도 그 시절 아이들에게 좋은 것 하나 먹이고 입히지 못한 죄책감에 아이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뿐이다.

수술을 하고 재활치료도 받았지만 난 결국 지체장애 2급의 ‘중증장애인’이 되었다. “장애인...” 어릴 적 옆 집 장애인 아저씨를 내가 얼마나 놀리고 멸시했는가?



2010년 10월 18일 개최된 『2010 전국중증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에서 ‘아름다운 배우자상(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 윤성열(왼쪽) 엄정숙(오른쪽) 부부.

그러던 내가 장애인이라니, 정말이지 죽는 게 낫다는 생각에 집에 있는 농약을 집어 들고 마시려 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잠들어 있는 나의 두 아이들과 나의 아내 순탄한 인생 행복만을 선물해 주고 싶었던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나의 어리석음이 이들에게 다시 한 번 상처로 남아서는 안 되리라는 생각에 죽을 용기로 어떻게든 살아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아내에게 말을 했더니 아내는 자신이 어떻게든 생계를 꾸려 볼 테니 식당을 경영해 보자고 했다. 음식솜씨가 제법 있는 아내인지라 승낙을 하고, 남의 터에 조립식으로 작게 식당을 개업했다. 닭과 오리를 잡아서 요리를 해주는 식당이었다. 동네 장사이긴 했어도 우리 부부의 딱한 사정을 잘 아는 지인들이 손님들을 모시고 오기에 그럭저럭 돈도 만질 수 있었다. 우리 삶에 조금의 햇살이 비추는 듯 했다.

장사를 시작하고 두 달 뒤 아내가 음식만 보면 냄새조차도 맡지 못하기 시작했다. 이상히 여겨 산부인과에 가보니 임신 3개월에 접어든 것이었다. 새로 생긴 귀한 생명과 생계 사이에서 우리 부부는 잠시 고민을 했다. 하지만 닭과 오리를 잡아

야 하는 아내가 임신한 몸으로는 도저히 식당을 경영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식당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아이 돌도 키우기 힘든 상황에서 셋째가 생겨버렸지만, 하지만 가장인 내가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도전해 보자! 장애는 장애일 뿐이다!”라고 다짐했다.

있는 돈을 다 모아서 5t 트럭을 샀다. 농협에 가서 장거리 운송화물을 내가 운반하는 조건에서 계약을 했다. 다행히 전에 다니던 직장이고 나의 딱한 사정을 듣고 나에게 기회를 주신 거였다.

힘들었어도 나의 가족들을 떠올리며 서울까지 힘든 줄 모르고 다녔다. 애호박이 한창 출하되던 어느 날 5t 트럭에 애호박을 가득 싣고 새벽 일찍 출발하려 집 앞쪽에 차를 세워 두었다. 집 앞에는 주차할 곳이 없어 인근 도로변이었다. 다음 날 새벽 아내가 지어준 따뜻한 밥을 먹고 서울로 출발하려고 집밖으로 나왔다. 그런데 “세상에 이럴 수가!”

나의 화물차가 밤사이에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그 큰 5t 트럭이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춘 것이다. 경찰에 신고해 봤

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하는 수 없이 가득 실려 있던 애호박 값까지 고스란히 물어주며 내 꿈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다. 정말 하늘을 원망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불행한 일만 허락하시냐고 말이다.

하지만 고통과 불행은 여기가 마지막이 아니었다. 2년 전 고등학교 1학년이던 사랑하는 나의 아이가 자신의 친구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다 그만 사고로 즉사해 버렸다. 난 더 이상 할 말도 살 이유도 없었다. 모든걸 포기하고 싶었다. 지금의 내 아내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되었을 거라 확신한다.

난 지금도 나의 아내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난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지 싶다. 아들의 죽음에 누구보다도 힘든 아내지만 아내가 날 다독였다. “우리에게는 두 아이가 남았다”며 “우릴 지켜보고 있는 두 아이가 세상이 우릴 버렸어도 우리가 살고 버텨야만 하는 이유”라고 말이다. 언제나 어떤 순간에도 나의 곁을 지켜주는 내 아내 엄정숙씨. 내가 그녀를 만나지 않았다면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동안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말을 이제는 하고 싶다. “나를 일으켜준 엄정숙 씨!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또한 어려서부터 비록 좋은 옷 한 번 입혀주지 못하고 대학교육도 못시켰지만 돈 벌었다고 집에 장판도 새로 깔아주고 아빠에게 발과도 같은 100만원이나 하는 트럭을 선물해준 우리 큰딸과 학원 한군데 못 보내도 투정만 번 안 부리고 열심히 공부 잘해주는 우리 막내에게 아빠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또한 파스한 눈길로 우리가정을 지켜봐주시고 격려해 주는 주위의 많은 사람들. 이들과 가족이 있기에 난 새로운 희망과 밝은 내일을 기대하며 오늘도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다.

〈끝〉

‘후원’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원동력

KT파워텔, 사랑의 저금통 기부



사랑의 저금통을 들고 있는 KT파워텔 직원들.

KT파워텔(대표 권행민)은 연말연시를 맞아 직원들이 모은 사랑의 저금통을 기부했다고 지난 달 30일(목) 밝혔다.

KT파워텔 지난 2010년 초 직원들에게 나눠줬던 ‘사랑의 저금통’을 최근 회수, 회사 기부금까지 포함해 총 400만원을 모아 백혈병 소아암 관련 단체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기부

했다.

KT 파워텔 아동양육시설 및 지역아동지원센터와 결연을 맺고 매월 문화체험 활동, 운영비

지원, 농촌 체험 등을 통해 소외아동들을 지원하고 있다.

KT파워텔 권행민 사장은 “누군가와 나누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함은 물론 사내 분위기나 소통에도 큰 도움을 주는 윤활유와 같다”면서 “2011년에도 지속적으로 사회 공헌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스타 애장품 경매’ 수익 전액 기부



©서울시청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이하 서울시)는 지난 4일(화) 지난해 12월 서울시와 포털 네이트가 희망 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실시한 ‘스타 애장품 경매’를 통해 발생한 833만여원의 수익금을 전액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경매에는 오세훈 서울 시장을 비롯해 연기자 장근석·유지태, 첼리스트 정명화

등의 서울시 홍보대사 14명과 주영훈·이윤미 부부 등 11명 등이 애장품을 기증했다.

특히 최고가를 기록한 애장품은 인기 아이돌 그룹 카라의 멤버 ‘구하라’의 양털부츠로 84만원에 낙찰됐다. 이어 주영훈·이윤미 부부의 유모차가 61만원, 유지태의 MP3플레이어가 58만원에 낙찰됐다.

또한 서울시 홍보대사로 활동중인 연기자 장근석이 드라마 ‘미남이시네요’에 출연하면서 입었던 셔츠가 48만500원, 사인 OST는 47만원에 낙찰됐고 오세훈 시장이 기증한 자필서적 및 최경주 선수 사인모자는 15만1000원에 낙찰됐다.

배중근 서울시 뉴미디어담당관은 “스타 애장품 경매에서 발생한 수익금 및 캠페인에서 모여진 후원금 전액을 서울시 저소득층을 돕는 희망플러스통장과 꿈나래통장에 모두 후원할 예정”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따뜻한 서울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전국에 16개 시·도 협회와 232개 시·군·구 지회를 두고 있는 비영리 순수 장애인단체입니다.

또한 이 나라 480만 장애인들의 질 향상과 자립을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사업, 각종 교육사업, 장애인예술제 및 중증장애인배우자 초청대회, 장애인자립작업장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대한민국 장애인복지선도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모여 장애인복지를 꽃피우고 이들이 다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으로 확신하며 ‘사랑 나눔 운동’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회원구분

일반회원 (2천원/월)	일반회원2 (5천원/월)	일반회원3 (1만원/월)
특별회원1 (3만원/월)	특별회원2 (5만원/월)	특별회원3 (10만원/월)
단체회원 (연 20만원이상)	기금회원	물품회원

■후원금 납부방법

- 지로, 자동이체
- 후원계좌 : 국민 822-01-0136-451
농협 033-01-174991

※ 후원금은 연말에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후원신청

- ① 전화신청 : ☎02)796-4280
- ② 홈페이지 신청
협회 홈페이지(<http://www.kappd.or.kr>) 접속 - 나눔마당 - 후원신청

■ 2010년 12월 후원자 명단(가나다 순)

강지민, 김경희, 김관혁, 김구환, 김성우, 김유림, 김정태, 김진호, 김태우, 김행우, 김환경, 남용원, 남혁우, 민속박물관, 박소연, 박종형, 서재훈, 선병욱, 손영주, 송용성, 송현, 신세계인천점, 씨씨엔아이코, 안창국, 유소연, 유유미, 유재복, 윤주석, 윤채환, 이강구, 이상돈, 이수현, 이운상, 이은정, 이효민, 임재종, 장재권, 정광엽, 조태동, 주명희, 주승운, 주영래, 주영우, 최옥란, 최인준, 최제훈, 최준량 (후원자님이 후원해 주신 후원금은 480만 장애인들과 복지증진을 위해 쓰여 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 후원자에게는 ‘월간 새보람’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날말맞추기 CROSSWORD

응
모
요
령

‘★’에 있는 말로 단어를 조합해 우편엽서에 정답을 적어 보내 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상품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층 홍보협력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필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답
비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한 질병으로 이로 인해 현재 105만7천939두의 가축이 살처분됐고 전국적으로 7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1		2			
			3		4	
★5					6	7
8		9			10	
	★11.					



지난호 정답

*1 신	칸	센		2 섬	진	3 강
채						박
4 호	5 외				6 공	증
	교				무	
	7 관	8 상		9 성	원	
		사		10 묘		
	11 보	병				

12월호 정답

신 묘

김성희 서울 도봉구 창동
 정운성 인천 부평구 갈산동
 이광우 경기 구리시 수택동

당첨자

| 가로열쇠 |

- 조선 시대에 세워진 최초의 근대식 국립 병원. 광혜원을 고친 것으로, 고종 31년 (1894)에 였었다.
- 우리나라 국토 전역을 포괄하는 반도.
- [화학] 주기율표 제4족에 속하는 비금속 원소의 하나. 유기 화합물의 주요 구성 원소로, 숯·석탄·금강석 따위로 산출된다. 보통 온도에서는 공기나 물의 작용을 받지 않으나 높은 온도에서는 산소와 쉽게 화합한다. 산화물의 환원, 금속 정련 따위에 쓴다. 원자 기호는 C.
- 산수유나무의 열매. 강장(强壯)의 효과가 있어 유정(遺精), 야뇨증, 대하 따위에 쓴다.
- [의학] 외상을 입은 피부나 각종 장기에 고름이 생기는 일. 화농균이 일으키는 염증을 이른다.
- 조선 말기에서 대한 제국까지의 시기.

| 세로열쇠 |

- 신령이나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냄. 또는 그런 의식.
-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여 응어리진 마음.
- 진구렁에 빠지고 숯불에 탄다는 뜻으로, 몹시 곤궁하여 고통스러운 지경을 이르는 말.
- 프로 레슬링 선수(1925~1963). 본명은 김광호(金光浩). 1939년에 일본으로 건너가 스모를 시작하였으며, 1951년에 레슬링 선수로 전향하여, 1958년에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 되었다.
- 일정한 소작료를 지급하며 다른 사람의 농지를 빌려 짓는 농사. 또는 그런 농민.
- [인명] 실업인·사회사업가(1895~1971).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 1926년에 제약업체인 유한 양행을 설립하여 의약품 보급에 기여하였으며, 교육 기관을 설립하는 등 많은 공헌을 하였다.
- 중국 후한(後漢) 말기에서 위나라 초기의 명의(名醫)(?~208). 약제의 조제나 침질, 뜸질에 능하고 외과 수술에 뛰어났으며, 일종의 체조에 의한 양생 요법인 ‘오금희(五禽戲)’를 창안하였다.

틀린크림찾기 DIFFERENT SEARCH



두 사진에는 3곳의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매달 정답자 세분에게는 가브리엘 천연공방에서 생산하고 있는 ‘천연비누’를 상품으로 보내드립니다.



가브리엘 천연공방의 ‘천연비누’

천연화장품 & 천연비누



당신의 피부...
 피부가 살아 숨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자연을 생각하는 아인미의 모든 원료는 화학원료가 아닌, 자연 속의 식물에서 추출한 식물성 오일과 천연광물, 천연색소와 화장품 원료 기준에 적합하고 검증된 원료들로부터 만들어진 과학적이고 친환경적인 제품입니다.

자연의 힘으로 스트레스와 유해물질들로 지치고 손상된 당신의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고 싶지 않으신가요?

아인미 비누는, 천연비누업계 최초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인증 및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인증 받은 제품을 취급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기념품, 답례품



천연화장품



천연비누



천연폼클렌징



천연바디워시

천연주방세제

※가브리엘 천연공방 수익금은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해 쓰여집니다.

아인美
 Natural Beauty

■문의
 Tel. 930-0783 Fax. 930-0784
 서울시 노원구 상계1동 1021-21
 http://www.gabrielcenter.or.kr

응모요령 : 2장의 사진 중 아래의 사진에 틀린 부분을 표시하고(2개 이상) 절취한 후, 우편엽서 뒷면에 붙여서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층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홍보협력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필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謹賀新年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

